

↑ 코스피 2637.10 (+8.48)	↓ 코스닥 725.15 (-13.20)
↓ 금리 (미국 9년) 2.598 (-0.023)	↑ 환율 (원/달러) 1463.25 (+9.85)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 가계 경제에 '직격탄'

라면·만두·빵 가격 줄줄이 인상
오투기, 2년 만에 라면가격 올려
CJ·동원, 만두 등 주요제품 상승
국민 71.5% "가계경제 악화 체감"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대응 필요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농심 제품 라면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먹거리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서민 경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주요 식음료는 물론 프랜차이즈 제품 가격 들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탓이다. 대표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라면'마저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하며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라면 이어 진라면도 올랐다

20일 오투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라면류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라면 가격 인상을 한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오투기는 총 27개의 라면 유형 중 16개 유형의 라면 제품 출고를 평균 7.5% 인상한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진라면이 716원에서 790원으로, 오톡통면이 800원에서 836원으로, 짜술랭이 976원에서 1056원으로, 진라면 용기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농심 역시 지난 17일부터 신라면 가격을 1000원으로 다시 올리고, 새우깡 가격을 조정하는 등 총 56개 라면·스낵 브랜드 중 17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했다.

먹거리 가격 인상은 지속 확산되는 추세다. CJ제일제당은 이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비비고만두 20여종, 스팸 등 대표 제품 가격을 올렸다. 대표 제품인 왕교자 가격은 8980원에서 9480원으로 5.6% 올랐으며 스팸 클래식(200g)은 5080원에서 5580원으로 9.8% 인상됐다. 동원F&B도 3월부터 대형마트 유통채널에서 냉동만두 15종 가격을 평균 5% 올렸다.

빵 가격도 상승세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푸레쥬르는 지난 1일부터 빵류 94종과 케이크 16종 등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SPC 파리아베르도 지난달부터 빵 96종, 케이크 25종 가격을 평균 5.9% 올린 바 있다.

커피와 주류 등도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1월 24일부터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등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다. 파스쿠찌 역시 2월 1일부터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등 주요 음료의 가격을 100~600원 올렸다. 롯데아사히주류는 3월 1일부터 아사히 슈퍼드라이 캔제품은 400원, 병

제품은 900원 인상한 바 있다. 식음료 업계는 고환율,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가격 인상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오투기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팜유 등 수입원료의 가격 급등과 농산물 등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유틸리티 비용과 인건비 역시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원가 부담이 누적되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10명중 7명 "경제적으로 어렵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물가 상승으로 올해 경제가 악화됐다고 답한 가계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국민 1000명 대상 '민생경제 현황 및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가계경제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선됐다'는 의견은 28.5%에 그쳤다.

가계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 71.9%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 '물가상승'을 꼽았다. 이어 ▲실질 소득 감소(11.9%) ▲일자리 부족 및 불안정(9.5%) ▲부채 증가(2.7%) ▲교육비 부담(1.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다고 느끼는 부문은 '식료품 및 외식비'로 전체 72%를 차지했다.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역시 '식료품 및 외식비'라는 응답이 54.1%로 가장 높았다.

1년 후 가계경제 상황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64.2%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5.8%에 그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국민들의 가계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투자와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특히 먹거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성,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해 달라"

이재용 만난 이재명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돼
대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사피)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든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삼성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누리길 바란다"며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사피(SSAFY·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요즘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달라서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 기회를 찾는 길을 삼성이 역량을 쏟아서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은 "정말 바쁘신 일정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피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피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고 사회

와의 동행이란 믿음 아래,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서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꾸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하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 한은 섰법 복잡

파월 의장 "관세 영향 지켜보아야
경기 침체, 우려할 상황은 아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상승과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오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준은 19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24년 9월과 11월, 12월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총 0.75%p 인하했다. 이후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관련기사 3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여전히 높은 물가가 크게 작용했다.

연준이 물가 지표로 주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보면 1월 기준 2.5%로 집계됐다. 금리를 내렸던 지난해 9월 개인소비지출 지수는



2.1%에서 꾸준히 올라 그해 12월 2.6%까지 높아졌다. 목표치(2%)에 근접했던 물가가 또다시 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과월 연준의장(사진)은 "물가가 상승하는 데 어떤 요인이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근 2개월 동안 무역 상품에 대한 물가상승이 크게 나타났다"며 "이는 관세정책으로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고려해 소비자가 미리 구매하거나, 기업들이 미리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나 아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고용은 지난 2월 기준 15만1000건 늘었다. 지난해 9월 25만4000건까지 늘었던 일자리 수는 올해 1월 14만3000건까지 떨어

졌다. 반면 실업률은 2월 4.1%로 지난해 9월, 12월과 같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몇 개월간 고용은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업은 자연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날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7%로 높였다. 실업률도 4.3%에서 4.4%로 올렸다. 그리고 2%대로 예상하던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는 1.7%로 0.4%p 낮췄다.

파월 의장은 경기둔화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경기침체의 가능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4분의 1(25%) 확률로 존재한다"며 "2개월 전과 비교해 침체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이전에 극히 낮았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메트로 한줄뉴스



▲ 유시민 "尹 탄핵당하면 '우익' 유튜브서 활동할 것... 국회에 치명적 재앙"
▲ '배신자 낙인' 與김상욱 "사형집행 기다리는 사람처럼... 울산서 선글라스 끼고 다녀" /사진 뉴시스

▲ 최태환 "헌재 앞 계란투척 철저히 수사... 재발 않도록 시위현장 관리 만전"
▲ 민주당, '백혜련 계란세례'에 "국힘이 무법 조장한 탓... 방치한 경찰도 책임"

▲ 민주당, 檢 오세훈 압력에 "진작 했어야 할 일... 신속히 소환조사해야"
▲ 민주당, 농해수위 與 불참에 "내란수괴 지키려 농업 내팽개쳐"

“도전 DNA 기반, 美·유럽·중동·中 글로벌 기회 찾을 것”

지난 19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개막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전쟁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대대적인 경영 쇄신을 공유하며 안정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주총은 단순 경영 보고를 넘어 신사업 전략과 이사회 개편 등 체질개선이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다.



호세 무노스 현대차 대표이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현대차 동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김동명 사장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제57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HYUNDAI

◆현대차 '친환경차 글로벌 리더십 확보'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총은 호세 무노스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주재했다. 외국인 최고 경영자(CEO) 체제에서의 첫 공식적인 주주들과 만남이다. 무노스 사장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상 최대 연매출 175조2000억원과 영업이익 14조2000억원을 달성했다”며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성장 등을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 갈등, 금리 변동성 등 어려움이 확대될 전망이다”며 “당사의 도전하는 DNA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 중동,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노스 사장은 올해 주요 경영 전략으로 ▲EV 리더십 강화 ▲상품·서비스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글로벌 원팀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전기차 부문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21종의 신규 EV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7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14종으로 늘려 글로벌 전동화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대형 전기 SUV 모델인 '아이오닉 9'의 양산 등 현지 생산 기반 강화와 미국 내 5년간 3만 개의 충전소 구축 등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럽과 중동, 중국 시장은 전기차 특화 모델을 투입해 수익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모든 안건이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됐다. 현대차는 올해 정관에 수소 사업을 추가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수소의 생산, 저장, 활용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맞춤형 수소 솔루션을 확보할 방침이다.

에너지&수소MI실 이인아 상무는 “현대차는 지난 30여년간 이어온 수소 사업을 앞으로도 글로벌 제반 환경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대차그룹 차원의 역

현대자동차

호세 무노스 대표이사 첫 주재
“연매출 175.2조, 영업이익 14.2조
경제 불확실성 속 사상 최대 매출”

LGD “고도화 사업 성과 극대화
모든 이해관계자들 신뢰 높일 것”
LG엔솔 “출범 4년만에 2배 성장
R&D역량 확대를 특히 7만여건”

량을 결집해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서 수소 생태계를 확장하고 동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진은숙 현대차 ICT담당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진 부사장은 현대차의 첫 여성 사내이사다. 또 김수이 전 캐나다연금 투자위원회(CPPIB) 글로벌 사모투자 대표, 도진명 전 쉐프 아시아 부회장, 벤자민 탄 전 싱가포르투자청(GIC) 아시아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LG 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LGD·LG엔솔 '미래 전략 비전 공유'

LG그룹 핵심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와 LG에너지솔루션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미래 전략과 비전을 공유했다. LG디스플레이는 경기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러닝센터에서 열린 주총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기반 확보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정철동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는 “지난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와 강도 높은 원가 혁신 및 운영 효율화에 집중했다”며 “올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구조 고도화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수익성 중심 사업 운영과 원가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형디스플레이사업은 개발역량과 고객 대응력을 높여 수익성을 강화하고 중형사업은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구조 개선으로 수익 확보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대형은 제품 판매 확대 및 원가 혁신으로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총에서는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이어 ▲2024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5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난해 경영 실적은 매출 26조6000억원 전년 대비 25% 성장, 영업손실 5600억원으로 적자폭 약 2조원을 축소했다. 사내이사(김성현)와 사외이사(강정해) 재선임 안건이 가결됐다. 기타비상무이사로는(주) LG 경영관리부부장인 이상우 부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재의 시기를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질적 성장'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차전지 산업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의 도전과 변화의 DNA로 만들어 나갈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전략·비전을 직접 밝혔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출범 이후 4년간 매출액, 수주잔고, 글로벌 생산 능력, 북미 점유율 모두 2배 이상 성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오퍼레이션 역량을 높였을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평균 28%의 수주잔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작년말 기준 약 400조원에 달하는 수주잔고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속적인 R&D 역량 확대를 통해 전 세계 주요 시장에 7만여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압도적 기술리더십을 축적했으며 장기 공급계약·지분투자를 통해 고품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도 확보한 상태다.

김 사장은 현재의 시기를 ▲제품 및 품질 경쟁력 강화 ▲구조적 원가 경쟁력 확보 ▲미래 기술 준비 등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규정하면서, “생산 능력(캐파) 투자 및 사업·고객·제품 포트폴리오 등 면에서도 운영 효율화에 힘써 질적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통형 46시리즈 관련 유의미한 사업 성과도 밝혔다. 김 사장은 “며칠 전 에리조나 법원에서 주요 고객과 다년간 연 10GWh 규모로 46시리즈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

포스코홀딩스

철강산업 탄소배출 극복에 총력
회장 재선임 주총가결정족수 상향
신임 사내이사에 이주태·천성래

한화오션

미국 조선업 진출 의지 확고히
부시 파트너 임기 2년 연장하고
김동관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다.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계약은 약 수조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총에서는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POSCO HOLDINGS

◆포스코, 회장 3연임 문턱 넘어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제57기 정기 주총을 개최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관세전쟁 격화와 원화 약세 등에 따라 올해도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 회장은 “철강산업이 탄소배출 산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회사 매출의 절반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써 글로벌 환경 문제에 더욱 신경쓰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견조한 이익 창출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회장 3연임 도전 시 주총 가결 정족수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장 후보자가 주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연임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홀딩스 회장 임기는 3년이지만 기존에는 최종 후보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만 얻으면 연임이 가능했다.

이날 주총에선 신임 사내이사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선임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 CTO·최고기술책임자)을 재선임했다. 이 본부장은 포스코 아메리카 법인장, 경영전략실장, 구매투자본부장,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 등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겸비한 포스코의 ‘전략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미래전략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올해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며 그룹의 핵심 경영진으로 자리매김했다.

천 본부장은 포스코 열연선재마케팅실장, 포스코마하라슈트라법인장을 거쳐 포스코홀딩스 철강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연구원장은 철강 연구 전문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등 신기술 연구 경험을 쌓았다.

사외이사로는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 교수와 유진영 엔젤식스플러스 대표를 재선임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성규 교수와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한화오션

◆한화오션 '美 조선업 공략 집중'

한화오션은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화오션 오션플라자 해피니스홀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하고 미국 조선업 진출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한화오션은 이날 말 종료 예정인 부시 파트너에 대한 임기를 2년 연장했다. 정치적 겸 변호사인 부시 파트너는 아버지가 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할아버지가 조지 H W 부시 미 41대 대통령, 큰아버지가 조지 W 부시 미 43대 대통령이다. 그는 2년 전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한화오션의 미국 진출을 도왔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미 해군 함정 MRO(정비·보수·유지) 사업 2건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또 이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의 일상 업무를 하진 않지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2023년 5월 주총에서 이사진을 교체했는데 이때 김 부회장도 합류했다.

이날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한화오션은 오랜 적자의 터널에서 벗어나 2024년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며 “재무구조 개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자금 확보, 에너지 밸류체인 및 전후방 사업 확장, 해외 생산거점 확보, 계열사간 시너지 발굴 등을 바탕으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 韓 ‘금리 동결’ 압박 커져

(스태그네이션+인플레이션 합성어)

연준 기준금리 동결

견조한 노동시장·경제상황 강조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영향 주시
韓, 5월 혹은 7월 금리인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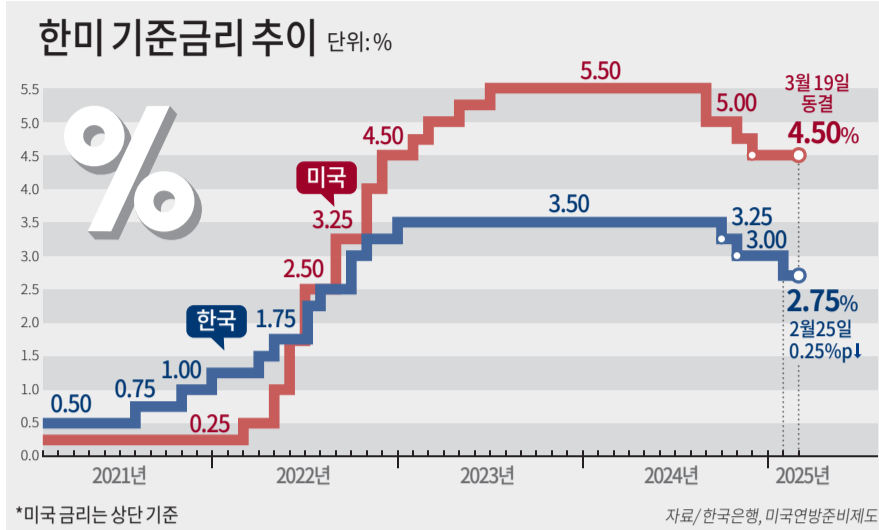
둘맹이를 던지는 입장에서선 던진 후 보복을 하는지 마는지 지켜볼 시간이라도 있지만, 둘맹이를 맞는 입장에서선 조급하기 그지없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던지는 지 몰라 준비하는 데 운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현 4.25~4.5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명확해지면 그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의 증가 폭이 둔화하고, 내수(소비·지출)가 여전히 부진한 것을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준 통화정책 신중... 보수적 운용 가능성 커져

이날 미국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



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의 합성어로 경제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은 경제전망 요약을 통해 올해 개인소비지출(PCE·소비자물가) 지수가 기존 2.5%에서 2.7%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7%로 낮췄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될 경우 물가는 오르고, 경기둔화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이번 회의에서 19명의 위원 중 4명은 올해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1명)과 비교해 증가했다. 올해 대다수 위원이 예상한 기준금리(4.75~4.00%)보다 더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위원은 지난해 12월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연준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점도표에서 올해 2차례의 금리인하를 예상했지만, 분포가 다소 바뀌었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연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엔피 파리바(BNP Paribas) 파리바는 “금리 및 점도표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정책 결정문에는 매파·비둘기파 해석이 어려운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관련한 문구가 추가됐다”며 “연준 위원간 리스크 균형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Nomura)는 “견조한 노동시장과 경제가 좋은 상황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이는 반대로 연준이 경기둔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 韓, 美 금리기조 영향... 5월 이후 인하 전망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의 증가 폭이 둔화하고, 내수(소비·지출)가 여전히 부진한 것을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출액은 491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0.2% 감소했다.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자동차에 25%, 반도체와 의약품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의 18.7%는 미국이 구입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 우리 기업이 상품에 늘어난 관세 비용을 더하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떨어져 수출이 부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국 불안에 얼어붙은 소비 회복도 더딘 상태다. 올해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4년 1월 2.9% 증가한 뒤 올해 1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4월 금리는 동결하되 5월과 7월 금리인하에 무게가 실린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추가 인하 횟수는 5월 혹은 7월 한차례 예상된다”며 “경제와 환율, 가계부채, 물가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한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금리인하 사이클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믿을 건 안전자산”... 금값 신기록 행진

불확실성 재점화

트럼프 美 대통령, 관세정책 오락가락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긴장감 고조

온스당 3000달러를 넘긴 금값이 또 치솟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의 여파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휴전 협상 결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교전이 재개되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재점화해왔다.

20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041.20(약 443만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0.40달러(0.01%) 오른 수준으로, 지난 14일 사상 최초로 3000달러를 넘겼던 금 가격은 이날까지 7일 연속 상승했다.

금 가격은 이어진 20일 거래에서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는 매일 오후 4시 종가를 산출한 뒤 1시간 휴장 후 거래를 재개한다. 이날 오후 8시(현지시간)께 금 가격은 온스당 3060.4달러에 달했다. 올해 초 가격인 2669달러보다 391.4달러(14.6%)나 올랐다.

금 가격이 빠르게 치솟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할 때 상승한다.

트럼프는 이달 들어 세계적인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 대한 가산 관세도 20%로 상향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골드바가 전시돼 있다. /뉴시스

철강 관세에 ‘맞불’을 놓은 유럽연합(EU)에는 주류 품목에 대한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중국은 미국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유럽연합도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50%의 관세를 예고했다. 무역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미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재확인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유럽, 중국, 한국 등과의 무역에서 수년간 적자를 봤다”라며 “이러한 적자는 미국 기업의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비관세 장벽과 관세 때문이다. 그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없앤다면 협상은 (상호 관세 부과 없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전쟁 여파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오는 4월부터 모든 철강 품목에서 국가별 수입쿼터를 15% 하향한다. 관세 여파로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마다. 보호무역이 대대적으로 확산하면서, 각국에서는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재개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크게 고조된 것 또한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휴전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자 휴전 동안 적대 행위를 중단했던 예멘의 친(親)이란 반군 후티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다. 이스라엘 군도 같은 날 시리아의 군사 기지에 공습을 가하는 등 중동 지역 내 긴장감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휴전 연장제안을 받아들여 노력했으나 하마스 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번 작전은 시작일 뿐”이라며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 이제부터 협상은 오직 전투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한 의사를 내비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상호관세 가시밭길... 2분기 수출 ‘적신호’

수출기업 경기전망

자동차 등 체감경기 위축 전망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이어 이달 2일 상호관세 부과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2분기(4~6월)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EBSI는 84.1로 2분기 연속 100을 하회해 전분기 대비 수출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전망을 조사 분석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을 상회하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을 하회한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15대 품목 중 11개 품목이 1분기 대비 낮은 값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은 59.4로, 전 분기 대비 수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와 더불어 이번 철강·알루미늄 과생품에 부과된 25%의 관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관세 대상인 철강(88.8)의 경우 관세 부과로 전 분기 대비 큰 하락이 예상됐으나, 물량 쿼터 폐지로 하락 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반도체(112.7)는 지난 1분기(64.4) 기저효과와 더불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 반도체 수요 확대가 예상됐다.

선박(140.6)도 LNG(액화천연가스) 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확대에 전 분기에 이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각국의 보복관세 가능성으로 10개 항목 중 ▲수입규제·통상마찰(45.4)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수출대상국 경기(77.3) ▲수출상품 제조원가(79.4) 등 9개 항목이 100을 하회했다.

특히,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깃관세 대상으로 지정했거나 언급한 반도체,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비철금속제품 등의 품목에서 우려감이 크게 나타났다.

주요 수출 애로요인(복수응답)은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19.2%)을 비롯해 ‘환율 변동성 확대(14.2%)’,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3.7%)’,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10.8%)’ 등이 꼽혔다.

양지원 무역수석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기존 생산 네트워크를 점검하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탄핵 블랙홀, 실종된 민생·경제 ‘리더십’... “혼란 지속될 것”

- 글 쓰는 순서 -

1. ‘피크 코리아’ 그림자 드리운 韓 경제
2. 경제는 심리... 모든 경제주체 위축
3. 경제 이끌 기업들 “아이 안 보인다”
4. 소비시장 주체가 “술 돈이 없다”

5. 리더십 없는 정부 “백악이 안 통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제 리더십 실종에 더해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민간과 공직 사회의 동력까지 상실하자 “백악이 무효”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심상치 않았다. 지난 2023년, 연구비 카르텔 척결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였던 1997년에도 R&D 지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과 야당의 비판이 빚발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상당 부분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국민의회는 백서에선 “대전 지역의 경우 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감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예산을 더 주겠다’란 메시지만으로는 지역 민심을 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복하기 어려우나 이런 부분이 간과됐다”며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대책과 메시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야심차게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에 준비했으나,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부산 29표로 약 4배 더 많은 표를 가져가면서 쓴잔을 마셨다. 당시 국제 사회의 민심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게는 사우디와 부산의 표심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보고가 이어지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2022~2023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투입된 세금은 약 453억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레고랜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 티메트

尹, 경제 리더십 실종 비상계엄 선포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반발 ▲ 부산엑스포 유치실패 혈세낭비 지적

레고랜드 PF 사태로 경제적 신뢰도 ↓ 탄핵 국면, 정치권 민생보다 권력 다툼 전문가 “탄핵 여파 경제혼란 장기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실패 등 경제 측면에서 적신호가 켜지더니 급기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정치권도 중심을 잡지 못했다. 여야는 극심한 대립을 지속하면서 민생·경

제를 위한 잘하기 경쟁보다 탄핵 국면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서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졌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정국이 몰고오는 블랙홀에 올해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여야가 완벽한 합의를 하지 못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에 합의한다고 해도 구조개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추경 편성은 야당이 전국민에게 현금성 쿠폰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내려놓기 쉽지 않아 추가 예산 지원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법 조조금 폐지 논란, 관세 폭탄 등 통상 과고가 밀려오고 있음에도 한국 정치권은 주52시간 근로제 해제 같은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이슈로 논쟁을 지속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결과를 떠나서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 기간 ‘저강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나라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 있고, 다뤄야 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었다고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 중에선 탄핵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 정책까지 계산에 넣으면 경제성장률이 1%대도 힘들 거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정치인으로서의 숙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직에 오른 한국 정치의 취약성과, 취임 이후 보여준 윤 대통령의 통치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자격’ 증보판에서 “윤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통치술)는 대한민국 수립 이래 유례가 없는 것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동양 전근대사를 거슬러 올라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혼군(昏君)’이자 ‘암군(暗君)’으로 불렸던 이들과 비교해야 할 지경이 됐다”고 폭평했다.

윤 전 장관은 또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를 발휘한 윤 대통령에게 개혁 의지가 있거나 했는지 의심스러웠고, 윤 대통령이 부르짖은 개혁은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추경 편성 ‘갈팡질팡’... 여야 대립 속 경제회복 방안 난항

여야 간 추경 규모·내용 등 차이 커 국회, 합의 불발에 기재부로 떠넘겨 기재부, 추경안 ‘불완전’ 편성 우려

12·3 사태에 따른 불황 심화의 타개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꼽힌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 대립에 따른 간극이 좁

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편성 자체가 난망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내용 등을 명시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양당은 기획재정부에 추경안을 짜서 이달 말까

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측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모 및 주요 내용과 관련한 정치권의 명확한 지침 없이 편성할 시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경에 대한 당위성·큰 틀에는 이미

지난달 의견이 모아졌으나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이른바 ‘핀셋’ 추경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소비·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추경 포함을

요구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조기대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한 통신매체에 이 같은 입장 차를 언급하고 난처함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견이 심한 쟁점에 대한 합의와 가이드라인 없이 편성한 추경안은 결국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우려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리 2, 3, 4호기 원자력발전은, 지난 40년 동안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고리본부는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더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 더 윤택한 주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계속운전으로 함께 합니다.

함께한 40년, 함께할 10년
당신 곁에 계속,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22년 기준 부산시민 사용 전력량의 **9.3배**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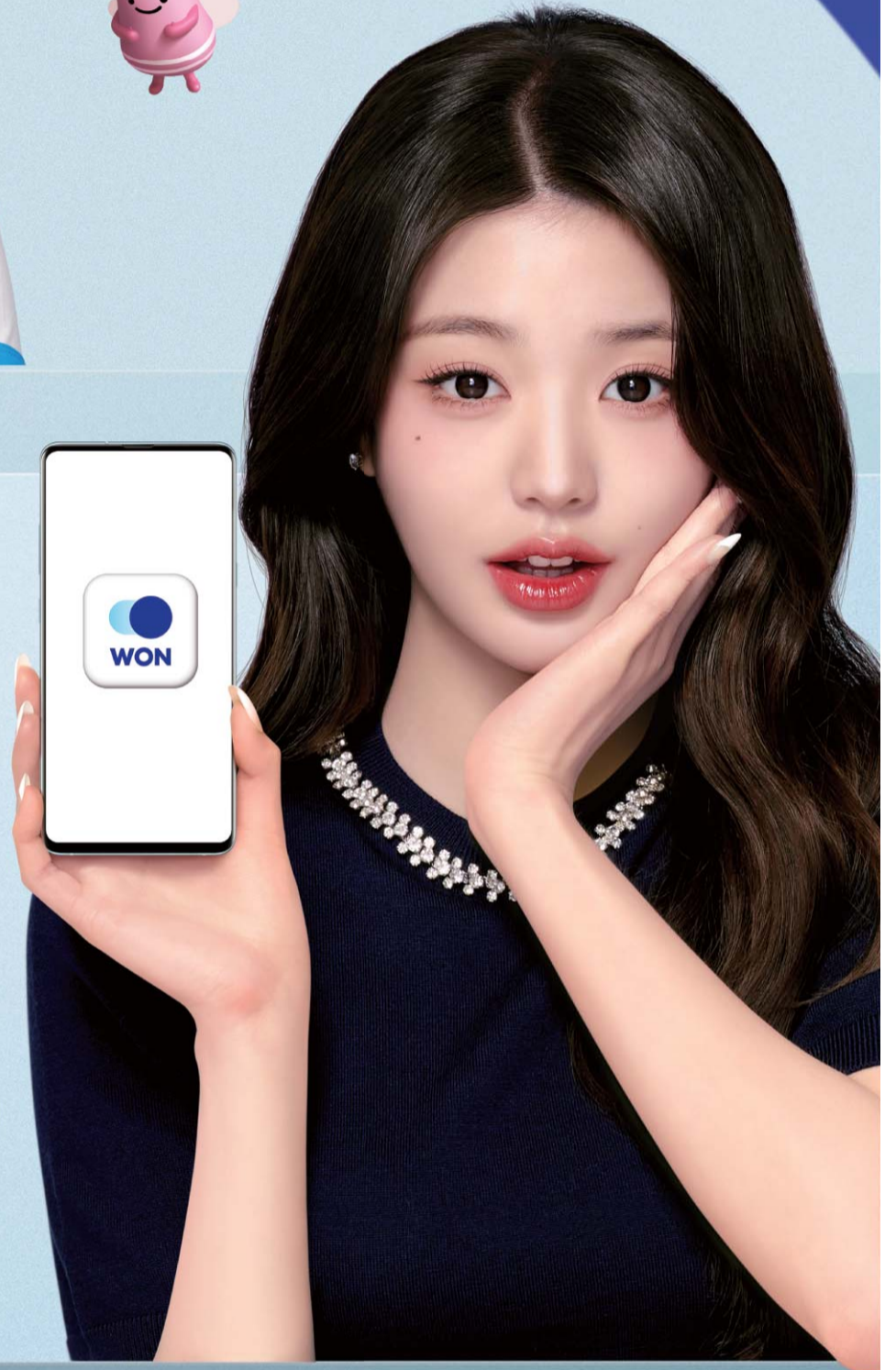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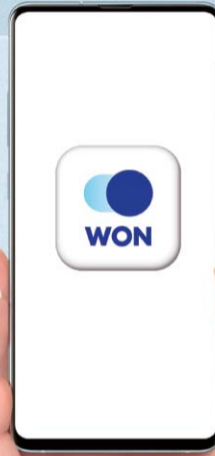
“간편하니까!”

은행, 카드, 캐피탈, 증권,
부동산을 한 곳에



더 **럭키비키**한 금융생활을 위해
우리WON은 **WON영이**랑

**WON
MORE**



“똑똑하니까!”

시대출상담부터
시투자성향분석까지



“특별하니까!”

꿀머니, e스포츠,
택배예약 등 특별한 서비스



※우리WON뱅크 앱은 사용자의 AOS/iOS 버전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WON뱅크 앱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 받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588-5000, 이용 안내시간 평일(09-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문의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5-2313(2025.03.11~2026.03.12)



우리은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

與野 합의처리… 18년 만의 연금개혁 내년부터 보험료율 年 0.5%씩 인상 소득대체율, 내년부터 43%로 올라 연금특위도 출범… 구조개혁 논의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한 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여야 원내지도부·복지위 간사가 모여 연금개혁안에 합의하고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6.5%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9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총 보험료는 40만1700원으로 현행보다 12만3600원 오르고, 직장인일 경우 절반인 20만8500원을 부담해 현행보다 6만1800원 증가한다.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309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매해 월 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월 309만원의 소득을 벌 경우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

(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른다. 수급 개시 후 25년간 연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원에서 3억1489만원으로 올라 2170만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로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이날 여야는 연금특위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활동기간

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말까지이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막판 여야의 쟁점이었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의 뜻대로 삽입됐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1998년과 2007년에 개정됐다”며 “국민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2차례 개정밖에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은 국민이 지켜보며 마음을 줄이기도 했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여야의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먼저 발표… “24일 오전 10시 선고”

尹 탄핵심판 결론 ‘미리보기’ 가능성 헌재 “금주尹 탄핵심판 선고 없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를 넘기게 돼 정치권의 혼란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1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선고를 받게 됐다. 한 총리는 12·3 비상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탄핵 반대 시위자가 던진 계란을 맞은 뒤 손수건을 들고 있다. /뉴스1

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를 ▲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영 체제 위한·위법성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미이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월13일 1차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고,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의 ‘미리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탄핵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담겨 있고, 헌재에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다뤘기 때문이다.

만일 헌재가 12·3비상계엄에 위한·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의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인용·기각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의 변론이 한 차례로 끝난 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헌재가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 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만큼, 헌재가 이 사건에서 ‘자기부정’을 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관계자는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공지는 없다”며 “(선고도) 이번주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내주 목·금요일(27·28일)로 밀리거나, 내달 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崔 대행, 헌법 위배사항 지속… 탄핵절차 개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진행 내란상설특검 후보추천 요청도 안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등을 헌법 위배 사항이라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이 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19일) 밤 국회에서의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

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권한대행 탄핵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란상설특검이 통과됐음에도 특검 후보추천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 /서예진 기자

사피 운영 기초, 공공외교 강화 등 논의

» 1면 “삼성, 경제성장 견인차…”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사피 아카데미는 삼성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와 청년 취업을 위해 2018년 시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사피 아카데미는 1년간 매일 8시간 총 1600시간 동안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SW 개발자를 양성한다. 연간 교육생은 2300명 수준이고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교육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이 대표와 이 회장은 비공개 회

동에서 10여분 동안 사피의 운영 기초, 정부·기업을 토대로 한 공공 외교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업계 현안인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 아닌가”라며 “나머지 지원 패키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삼성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집값 조정 효과는 제한적… 대출규제·금리변동이 변수”

토허제 재지정, 시장 반응

“단기적 거래 위축 가능성
강남권 외곽으로 이동 예상
일관성 부족한 정부 정책
오히려 시장 불안정 키워”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메트로신문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격 조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장에서 급매물이 나오긴 어렵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24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 재지정에 대해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단기간 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권의 단기적 거래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지금 당장 거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뉴스시스

래를 막는다고 해서 언제까지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토허제가 해제된 직후 가격 변동이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보다 대출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강남권 주요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도 “거래는 줄겠지만 가격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삼성동은 학군, 직주근접 등의

장점이 확고하고 신규 대단지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거래 위축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토허제 자체가 강남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대출 규제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용 8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31억 5000만~32억원까지 가격이 올랐으며 최근에는 35억원에 나온 매물도 있다”며 “토허제 재지정이 됐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동 공인중개업소 B씨는 “24일

이전에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보이고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보다 금융 환경이 강남권 매매 시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56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잠실 엘스’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일부 매물이 나오고 있다.

B씨는 “잠실 엘스 전용 84㎡는 규제 해제 전 28억원대에서 시작해 최근 31억~32억원까지 상승했다”며 “토허제 재지정이 발표되면서 일부 매도자들이 24일 이전에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대단지라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많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심리가 작용해 일부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치동 공인중개업소 C씨는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40억원대에서 한 달 만에 43억원까지 상승했다”며 “이번 조치로 추가 상승은 어렵겠지만 매도자들이

급하게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며 “강남 3구 외곽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의 매물에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대출 규제 및 금리 변동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을 5월부터 90%로 조기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함 랩장은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해 차주별 대출 총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매입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청년도약계좌, 상품 개선에도 기피 여전

유동성 중시하는 청년세대 ‘부담’ 고납입액에 중도인출 까다로워

정부의 청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고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꾸준한 상품 개선과 은행권의 금리 하락으로 상품의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상품 구조에 따른 기피 요인이 여전해서다.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도 발목을 잡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는 173만명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144만명으로, 지난 6개월간 청년도약계좌의 월평균 가입자는 5만명이 되지 않았다. 출범 당시 제시한 가입자 목표치는 301만명이었다.

지난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최대 월 70만원을 내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높은 금리에 더해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제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은행권 적금과 비교한 실질 금리가 연 7~8%에 육박했던 만큼, 청년도약

계좌는 높은 경쟁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납입액이 월 70만원으로 부담스럽고, 해지 시 금리가 크게 낮아진다는 지적에 가입자가 빠르게 줄었다. 1주년인 지난해 6월 기준 가입자는 133만명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줄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적금 수준의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가구 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 지원금 지원 구간도 소득과 관계없이 월 70만 원까지 상향했다. 지원금 상향으로 은행권 적금과 비교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최대 연 9.54%까지 올랐다.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면 신용점수에 가점도 부여한다.

거듭된 개선으로 상품 경쟁력은 개선됐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증가세는 여전히 더디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 때문이다.

일례로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은 매년 4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35%가 넘는 84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의 청년은 납입액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실질 금리는 은행권 적금과 비슷한 6% 수준이다.

금융상품 선택 시 높은 유동성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금융상품 소비 성향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M세대(29~43세)와 Z세대(20~28세)의 금융자산에서 투자·신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5.7%포인트(p), 3.8%p 상승했다. 베이비부머세대(59~64세, +2.1%p)와 X세대(44세~58세, +3.2%p)보다 상승세가 가팔랐다. 자금이 투자·신탁으로 이동하면서, 유동성이 낮은 예·적금 비중은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예·적금의 유동성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수요에 따라 만기가 6개월 이하인 ‘초단기 금융상품’의 취급을 늘리고 있다.

최근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는 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매력적이지만, 월 수십만원에 달하는 납입액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중도인출에도 까다로운 요건이 있어, 개인적인 사유로 급전이 필요할 경우 해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20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대건설

“내실강화로 올 31조 수주, 매출 30조 목표”

현대건설 정기주총

이한우 대표이사 “체질개선 집중”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20일 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영목표로 수주 31조 1000억원, 매출 30조 4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대표는 이날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회복, 혁신 상품과 기술 개발로 지속성장의 토대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가치 창출을 위해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글로벌 건설 명가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 2209억원을 잠정 기록해 전년(영업이익 7854억원) 동기 대비 2조원 이상 줄어들며 적자 전환했다. 202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현대건설의 자산 총계는 27조 53억원, 부채 총계

는 17조 3359억원, 자본 총계는 9조 6694억원이다.

지난해 사우디 자푸라 패키지2,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송전공사,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대전 도안 리버파크 등 국내외 주요 사업을 통해 30조 5281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대표는 “주주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내실 강화와 수익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업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우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부가·저경쟁 사업을 확대하고 미래 저탄소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 분야와 고품질 주거상품을 개발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지원 기자 jjw1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만드세요

오늘부터 6개 은행서 개설 가능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

개 은행에서 모바일 등록증으로 계좌개설 등 은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했다.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

체류하기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살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 등록증을 스마트폰을 접촉하거나, 쿼일(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은행

신입장애대학생 대상 최신형 노트북 지원

KB국민은행은 새 학기를 맞아 신입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신형 노트북 및 장애유형에 맞는 학습보조기구를 지

원한다고 20일 밝혔다.

KB국민은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9년부터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원대상은 2025년 4년제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에 입학해 등록한 장애대학생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초슬림 스마트폰 경쟁 치열... 디스플레이업계 '함박웃음'

단말 제조사, 초슬림 신제품 붐물 LGD 등 소형 OLED 출하량 급증 디스플레이업계, 실적개선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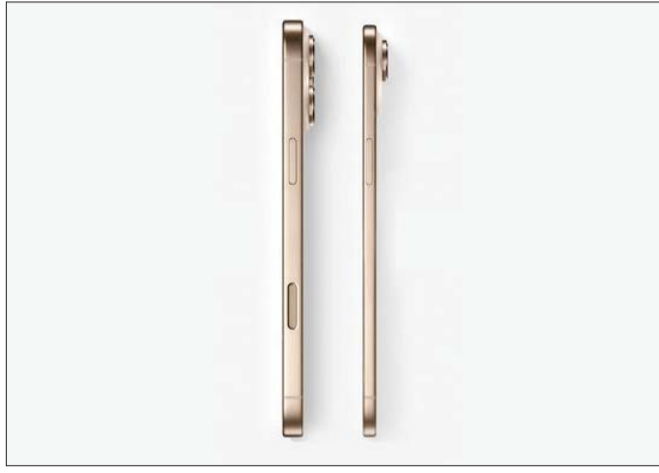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들의 '초슬림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역대 갤럭시 S시리즈 중 가장 얇다고 알려진 '갤럭시 S25 엣지'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공개행사를 열어 갤럭시 S25 엣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언팩을 통해 구체적인 스펙·가격을 공개하고 5월부터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S25 엣지의 본체 두께는 약 5.84mm, 카메라 모듈을 포함한 두께는 8.3mm 수준이다. 갤럭시 S25 기본형인 7.2mm, 울트라 8.2mm와 비교하면 대폭 얇아진 수준이다. 무게도 162g으로 갤럭시 S25 기본형과 같지만 S25 플러스 보다는 28g 더 가벼운 것으로 알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2025에 전시된 '갤럭시 S25 엣지'. /뉴스스



아이폰17 에어의 예상 렌더링과 아이폰16 프로 맥스의 두께 비교. /맥루머스 X 캡처

려졌다.

애플은 올해 가장 얇은 두께를 갖춘 '아이폰 17 에어'를 공개할 전망이다.

이날 IT 틱스터(정보유출자) 아이스 유니버스의 SNS(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아이폰17 에어'의 기기 본체 두께는 5.5mm, 카메라 모듈 두께는 4mm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은 이를 위해 철화했던 '충전단자 제거' 계획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유선 충전 단자를 검토했지만 유럽연합(EU)의 C타입 단자(U SB-C) 의무화 규제에 해당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EU가 완전 무선 제품 규제를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향후 애플이 충전단자 제거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제조사들도 초슬림 스마트폰을 내놓았거나 공개를 준비중이다. 앞서 오포는 지난달 말 신제품 출시 행사를

열고 폴더블폰 신제품 '파인드 N5'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펼쳤을 때 두께 4.21mm, 접으면 8.93mm로 전작보다 두께를 26%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글로벌 단말 제조사들의 초슬림 스마트폰 확대 기조에 디스플레이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유리서치의 '1Q25 소형 OLED 디스플레이 마켓트랙'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출하량

이 1년 새 2억대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소형 OLED 출하량은 7억7300만대에서 2024년 9억 8000만대까지 급증했다. 2025년에는 10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2023년 5200만대였던 출하량이 2024년 6800만대까지 증가했다. 소형 OLED는 저가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이폰 프리미엄 모델 등에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도 초슬림 스마트폰 OLED를 공개하고 시장 확보에 나선다. 회사는 올해 MWC에서 같은 전력으로 1.5배 밝은 화면을 구현하고 기존 OLED보다 20%가량 얇은 차세대 스마트폰 OLED를 공개했다. 해당 제품 초고휘도 OLED는 최대 화면 밝기가 5000니트(nit)에 달한다. 편광판이 제거돼 패널의 두께도 얇아졌다. OCF가 적용된 패널은 편광판이 있는 기존 OLED 패널과 비교하면 약 20% 얇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OCI홀딩스, 美 태양광 셀 생산공장 세운다

3840억 투자... 2026년 상업 생산 '태양광 밸류체인 단계적으로 강화'

OCI홀딩스는 20일 미국 태양광사업 자회사인 미션솔라에너지(Mission Solar Energy/MSE)의 부지에 독자적으로 태양광 셀 생산 공장을 세워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는 총 2억 6500만 달러(한화 약 3840억원)를 투자해 오는 2026년 상반기 1GW(기가와트)의 태양광 셀 상업 생산을 시작하고, 하반기 1GW(기가와트) 규모의 점진적 증설을 통해 총 2GW(기가와트)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TerraSus(구 OCI M)의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신규 법인의 셀로 이어지는

비중국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Clean Supply Chain)을 구축하게 된다.

OCI TerraSus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은 말레이시아의 친환경 수력발전을 기반으로 RE100 요건을 충족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준수하고 있어 글로벌 고객들에게 미국 수출에 용이한 제품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셀 제조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1W(와트)당 4센트의 첨단세액공제(AMPC)를 받게 되고 고객사의 경우 해당 셀과 같이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태양광 프로젝트(발전 사업)는 추가적인 10% 투자세액공제(I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익성이 향상된다.

OCI홀딩스는 지난 2014년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미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업을 시작한 이후 10여년간 대규모의 다양한 태양광 사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이번 태양광 셀 생산 공장 설립은 기존 부지와 설비를 활용한 비용 절감과 함께 사전에 준비된 각종 인허가 보유로 상업 생산까지 타사 대비 1년 이상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이번 태양광 셀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해 OCI TerraSus의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클린 서플라이 체인의 미국산 셀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이번 최소 비용과 최단 기간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운 기자 sy2665@



'2025 스마트 시티 서밋 & 엑스포(2025 SCSE)'에 참가한 현대로템 전시관 전경.

현대로템, 미래 수소 에너지 기술력 뽐내

대만 SCSE 참가... HTWO 등 소개 현대로템이 대만에서 미래 수소 에너지 기술력을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20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대만 가오슝시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 시티 서밋 & 엑스포(SCSE)'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SCSE는 대만의 대표 스마트 시티 박람회다.

현대로템은 이번 박람회에서 현대차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에이치투)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수소 종합 솔루션 'HTWO Grid'(에이치투 그리드) 등 수소 사업을 소개한다.

전시 부스는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현한 '디오라마'를 전시해 미래 수소 사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수소전기트램 모형 등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소개한다.

현대로템은 전시를 통해 대만의 수소 전략과 가오슝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반한 수소 사회 종합 솔루션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양승운 기자

현대차·기아, 보안 솔루션 사업 고도화

슈프리마 업무협약 체결

현대자동차·기아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보안 시스템 전문 업체 슈프리마와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솔루션 구축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슈프리마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협력해 팩토리얼 성수에서 로봇 친화 빌딩 검증을 수행한 국내 출입 통제 분야 1위 업체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로봇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혁신적인 로보틱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양측은 AI와 로보틱스를 융합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 로보틱스 기

술을 활용한 신규 보안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이 첫 시작으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달이 딜리버리 등을 활용해 물리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검증할 방침이다. 물리 보안은 범죄 등 고의적 위협으로부터 인명, 시설, 정보 등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취약성을 통제하는 활동이다.

현대차·기아는 다양한 로보틱스 기술을 서비스에 융합하는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피스, 종합병원, 호텔 등 로봇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한결 검증된 기술과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로봇과 사람이 건물 내 인프라의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오른쪽)와 슈프리마 김한철 대표가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약을 극복하고 편리한 이동과 새로운 공간 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업계 표준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력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히 AI 기술이 결합된 '로보틱스 토탈 서비스'가 기존 정적 물리보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운 기자 ysw@

EU "구글·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유럽연합(EU)은 구글·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하며 불공정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DMA는 애플 등 7개 주요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규로, 지난해 3월 발효됐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애플에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일명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핵심 요건은 타사 스마트워치에 iOS

알림을 표시하고, 타사 헤드폰에서도 자동 오디오 전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 타사 제품에 에어드롭 대안책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알파벳에 대한 DMA 위반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구글 검색엔진은 경쟁사 서비스보다 알파벳 자체 서비스를 먼저 드러낸다"며 "이는 '서비스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취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



삼성전자가 20일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가전 전시회 'AWE 2025'에 꾸린 전시 부스. /삼성전자



LG전자가 20일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가전 전시회 'AWE 2025'에 꾸린 전시 부스. /LG전자

삼성·LG, AI 홈 가전으로 대격돌 맞춤형 솔루션, 사용자 경험 혁신

중 상하이서 'AWE 2025' 참가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가전 공개
스마트싱스·빅스비 혁신적 연결

LG전자, 공감지능 가전 전시
IoT 기술 사용자 맞춤 경험 제공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 최대 가전 전시회 'AWE 2025'에 나란히 참가해 인공지능(AI) 홈 가전 기술 경쟁을 펼친다. AWE는 약 1000개 업체가 참가하고 3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아시아 최대 가전 박람회다. 미국 CES, 독일 IFA와 함께 글로벌 3대 가전·전자제품 박람회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20~23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AWE 2025'에 참가해 현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AI 홈을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1512㎡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 비전을 실현하는 다양한 비스포크 AI가전과 연결 시나리오를 선보인다. 비스포크 AI가전은 ▲삼성

전자의 보안 솔루션 '녹스(Knox)' ▲기기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 ▲AI 음성비서 '빅스비(Bixby)'를 기반으로 한층 강력한 AI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에 전시하는 스포크 AI가전은 ▲9형 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신제품 ▲7형 스크린을 탑재한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등 AI 기능의 사용성을 높이는 '스크린'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현지 맞춤형 상품도 선보였다. 중국의 평균적인 주방 가구장 크기에 맞춰 600mm 깊이로 더 슬림한 디자인을 갖춘 동시에 용량은 501리터로 최대화한 중국형 '키친핏 맥스(Max)' 냉장고가 대표적이다.

황태환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다양한 AI 기능과 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AI가전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한다"며 "소비자의 일상에 혁신을 더하는 AI 홈 경험을 글로벌 시장에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LG전자의 공감지능(AI)'을 주제로 1104㎡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아시아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AI 가전, IoT(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맞춤형으로 제안하고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를 더한 'AI 코어테크'를 소개한다.

부스 입구에 설치된 하이라이트 존에서는 AI 홈 허브 'LG 씽큐 온'과 집안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고객의 말과 행동, 환경을 감지하고 고객과 대화하며 연결된 가전과 IoT 기기를 제어한다.

전시장 내부에는 ▲AI로 세탁물의 무게·옷감 등을 분석해 세탁 강도를 자동 조절하는 AI DD모터를 적용한 세탁기 ▲고객이 바람의 세기나 방향을 조절하지 않아도 AI가 공간을 분석해 최적의 온도를 맞추주는 에어컨 등을 선보인다.

류재철 LG전자 HS사업본부장(사장)은 "아시아 고객들에게 LG전자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력을 알려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HD현대 조선3사, 생산기술직 공개 채용

내국인 우수 인력 채용 확대 방침

HD현대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가 생산기술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공개채용은 사내 기술교육원 수료생과 2년 이상의 협력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부 생산기술직 채용을 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경력 및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된다.

조선 시황 회복에 따른 선박 건조물량 증가에 대응하고 선박 건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것이다. 이들 회사가 울산광역시와 전라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HD현대에는 이번 공개채용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내국인 우수 인력의 채용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D현대 조선 3사는 오는 31일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인성 검사, 면접 등을 거친 뒤 7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최대 160명 수준으로, 기술교육원 교육을 포함, 최대 1년간의 인턴십 과정을 거쳐 본인 자질과 기량에 맞는 직무로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HD현대에는 새로운 인재들이 회사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간동안 사내 전문 강사진에 의한 입문교육과 직종별 전문 기술교육, 선배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등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제공해 빠르게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HD현대 관계자는 "인구감소로 산업에 걸쳐 인력 부족 문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기술 인력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개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우수 인재, 제조 AI기업과 성장 적극 협력"

오영주 중기부 장관

AI 활용·확산 인력정책 점검회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우수한 인재가 스타트업, 제조 AI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팀스타운에서 열린 AI 활용·확산을 위한 인력정책 방향 점검회의에서 "AI 국가 대표 스타트업 육성 및 AI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해선 우수한 AI 인재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AI 스타트업, 제조 AI기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구체적인 우수 인재 양성·공급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AI 핵심인재 확보가 곧 기술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재직자의 AI 역량 제고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산학연계인민순흥 부연구위원은 이날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AI 도입기업의 애로사항 및 인력현황,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책을 소개했다.

이러한 토론회에서 벤처·스타트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강화, 재직자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우수인재 채용 및 근속 유도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 유영준 이사는 "해외 우수 AI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정책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AI 스타트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 지원 강화... 조직 개편으로 실행력 높여

'중진공 주요 경영 활동' 발표
임원별 '지역책임경영' 구축
'경남 진주 본사 증축' 계획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정책 지원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더욱 바짝 다가가기 위해 새 단장에 나섰다.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현장과 소통도 확대한다. 경남 진주에 있는 본사 공간이 협소해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추가로 짓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중진공 이창섭 기획관리 이사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2025년 중진공 주요 경영 활동'을 발표했다.

이 이사는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면서 "임원별로 권역을 분담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책임경영' 체계를 새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역수요를 반영

해 서울북부지부를 '서울지역본부'로, 서울동남부지부를 '서울동부지부'와 '서울남부지부'로 각각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중진공은 혁신기업 선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금융평가실'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종합 물류지원 전담팀'을 꾸려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1분기 기준으로 20여 차례 '찾아가는 중진공'도 진행했다.

이는 중소기업 현장과 정책을 이어주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 홍보,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펼치고 있다.

경남 진주 본사 증축도 계획하고 있다.

중진공은 서울 여의도에 있던 본사를 2014년 7월 당시 경남 진주로 옮겼다. 하지만 그 사이 전체 근무 인원이

작년 기준 1434명으로 크게 늘면서 공간이 협소해졌다. 이때문에 현재 인력 성장이가 관장하는 소속 부서는 모두 '별관'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올해 예산에 18억원을 배정, 현재 지반 조사 등 건물 증축을 위한 초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도 추진한다. 상반기 내 정책자금 예산의 73.9%와 중소기업 토태펀드 출자금 100%를 조기 집행한다.

이 이사는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정책 집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폭스바겐코리아, ID.4 오너 스토리 공모전

국내 누적판매 5000대 돌파 기념

폭스바겐코리아가 베스트셀링 순수 전기 SUV 'ID.4' 국내 누적판매 5000대 돌파를 기념해 ID.4 오너들의 특별한 사연을 모집하는 'ID. For Dream' 오너 스토리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ID.4와 함께 해온 고객의 소중한 이야기를 듣고 ID.4 오너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ID.4는 뛰어난 주행 성능과 실용성을 갖춘 순수 전기 SUV로 많은 고객에게 새로운 전기차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ID.4와 함께한 감동적인 순간, 일상 속 편안함 등 나만의 특별한 ID.4 이야기와 ID.4와 함께 이루

고 싶은 소원을 모집하고 선정된 오너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우수 사연자 250명에게는 전기차 충전 바우처(2만원)를 제공하며 소원 당첨자로 선정된 10명의 고객에게는 폭스바겐코리아가 200만원 상당의 소원 실현을 지원하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소원별 지원 방식 상이하다.

ID.4오너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응모 기간은 오는 4월 11일 까지, 당첨자는 4월 14일에 개별 발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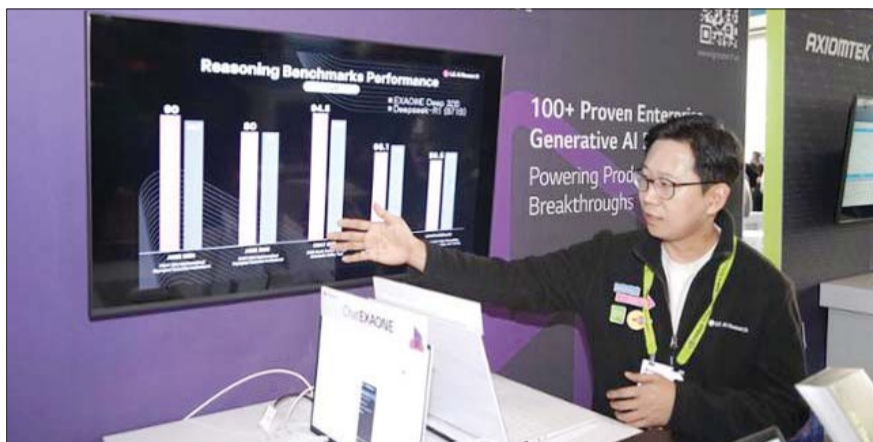
폭스바겐코리아 신동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상무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폭스바겐 전기차만의 특별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ANGELINUS

생성형 AI부터 스타트업 지원... IT기업 신사업 쏟아낸다

LG AI연구원 AI '역사원 답' 공개
AWS 코엑스서 '유니콘데이' 개최
 국내 스타트업 성장 전략 등 홍보
앤스로픽 '코리아 빌더 서밋'
 韓 지사 설립·스타트업 지원 발표
어도비 서밋서 AI 마케팅 솔루션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18일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행사 GTC가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의 전시장에서 추론형 인공지능 모델 '역사원 답'을 소개하고 있다. /LG

인공지능(AI) 열기가 식지 않고 더 타오르고 있다. 3월에만 아마존웹서비스(AWS), 앤스로픽, 어도비, LG AI연구원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대형 행사를 개최하고 AI 관련 신사업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스타트업 지원부터 생성형 AI 모델 경쟁, 마케팅 혁신까지 제시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 LG AI연구원 "딥시크 R1의 5% 매개변수로 같은 성능"

LG AI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새너제이에서 개막한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행사(GTC)에서 자사가 개발한 AI 모델 '역사원 답'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역사원 답'이 저비용·고효율 추론형 모델 딥시크 R1의 약 5%에 불과한 매개변수로 R1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기본 AI 모델인) 역사원 3.0에서 3.5를 내놓는데 4개월이 걸렸고, 이번 추론 모델이

나오기까지는 4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통합 모델을 내놓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역사원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 '역사원 챗'은 LG그룹 내에서만 활용 중이다. 배 원장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와 소재 분야 해외 기업 10여 곳과도 협력 중이다.

◆ AWS "韓 AI 스타트업 성장 도울 것"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AWS 유니콘데이'를 연 AWS는 국내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자사 전략을 홍보했다. AI 스타트업과 B2B 서비스형 SaaS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AWS 이기혁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총괄은 "AWS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비롯한 글로벌 이벤

트 참여 및 기술 투자 기회를 크게 늘릴 것"이라며 "글로벌 벤처캐피탈(VC) 네트워크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대기업과 협업해 실질적인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AWS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10주간 아마존 본사에서 멘토링을 제공하고 연례 컨퍼런스 'AWS 리인벤트'에서 쇼케이스 여는 '생성형 AI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WS는 스타트업의 미국·일본 글로벌 행사 참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앤스로픽 "韓 지사 열 계획... 한국어 기능도 발전 중"

오픈AI의 최대 라이벌 중 하나로 꼽히는 앤스로픽도 19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개발자 행사 '코리아 빌더 서밋'을 통해 한국 지사 설립 소식과 함께 국내 AI 스타트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앤스로픽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창립 멤버 8명이 2021년 설립한 기업으로,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했다.

케이트 얼 제슨 앤스로픽 매출 총괄 책임자는 "올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첫 해"라고 밝혔다. 이어 클로드의 한국어 기능 또한 계속 개선, 고도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어도비 "마케팅 혁신, AI 에이전트로"

어도비는 19일(현지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어도비 서밋 2025'를 열고 마케팅을 위한 주요 AI 마케팅 솔루션들을 소개했다. 이번 어도비 서밋의 핵심 키워드는 'AI'와 '마케팅 혁신'이었다.

안줄 밤브리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은 "브랜드마다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마케팅은 전략적 의사결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다양한 어도비 에이전트를 각각의 마케팅 톨과 긴밀히 통합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목표·계약 조건만 전달하면, AI가 적절한 고객 세분화부터 고객 경로 설계, 실험과정까지 한번에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어도비에 따르면 여행업체가 '6개월 내 항공권 또는 호텔을 예약한 고객 중 렌터카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AI에게 물으면 모델 생성과 고객 페르소나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송파구에 위치한 Cloud X 통합기술지원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직원들이 모니터링 중이다. /SK브로드밴드

SKB-SBI저축은행 클라우드 엑스 공급 계약

SK브로드밴드는 SBI저축은행스마트워크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솔루션 '클라우드 엑스(Cloud X)'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Cloud X는 SK브로드밴드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VDI 솔루션이다. 개별 PC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서버에서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가상 PC 1500대 규모의 업무망 VDI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KT 엠모바일 eSIM 고객에도 'AI 자동개통' 적용

KT 엠모바일이 지난 19일부터 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 개통 고객까지 'AI 자동개통' 서비스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는 eSIM 개통 신청 고객도 대기할 필요가 없다.

KT엠모바일은 지난 지난해 6월 업계 최초로 AI 기반 자동개통 시스템을 선보이며 고객의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정보 검증, 개통 처리까지의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 고객의 개통 대기시간을 대폭 감소 시켰다. /김서현 기자

엔비디아, 올해 하반기부터 '가속 양자 연구센터' 운영

AI 기반 로보틱스·자동화로 산업 혁신
 기능 강화 위해 '블랙웰' 생산 도입
 매년 새로운 GPU·CPU 등 개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의 발전상을 제시한 엔비디아가 가속 양자 컴퓨팅 연구 센터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GTC 2025'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NVAQC)'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NVAQC는 양자 컴퓨팅 발전을 위한 기술 제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엔비디아는 선도적인 양자 하드웨어와 AI 슈퍼컴퓨터를 통합해 가속 양자 슈퍼컴퓨팅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NVAQC는 큐비트 노이즈(양자 컴퓨터의 연산 오류) 문제부터 실험용 양자 프로세서를 실용적인 장치로 전환하는 것까지 양자 컴퓨팅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신약 개발부터 재료 개발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AI 슈퍼컴퓨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NVAQC는 다양한 양자 연구 커뮤니티와 협력해 유용한 가속 양자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개최된 GTC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황 CEO는 AI 기술이 변곡점에 섰다고 진단했다. 추론 AI와 에이전트 AI의 부상으로 AI 컴퓨팅 수

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현재 로보틱스와 산업용 물리적 AI의 시장 규모는 50조달러(약 7경3020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황 CEO는 "AI 기반 로보틱스와 자동화가 제조, 물류, 의료 등 산업을 혁신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아이작과 코스모스 플랫폼이 발전을 주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이작은 로봇 개발을 위한 AI 기반 시뮬레이션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학습, 제어, 동작 최적화를 지원한다. 코스모스 플랫폼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3D 환경을 생성하고, 이 환경에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엔비디아는 AI 모델의 훈련과 추론

기능 강화를 위한 AI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블랙웰' 생산에 들어갔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차세대 AI GPU(그래픽 처리 장치) 아키텍처로, 이전 세대인 호퍼보다 40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AI 모델의 훈련과 추론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비디아는 1년 주기로 AI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황 CEO는 "매년 새로운 GPU와 CPU(중앙 처리 장치), 가속 컴퓨팅의 신기능을 개발할 것"이라며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안된 베라 루빈 아키텍처(블랙웰의 후속)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ik1@

LG CNS, 美 AI 기업과 '에이전트 AI' 경쟁력 강화

W&B와 에이전트 AI 공동연구 개발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 LG CNS가 '에이전트 AI(인공지능)' 시장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LG CNS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기업 W&B(Weights & Biases)와 에이전트 AI 운영 역량 강

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에이전트 AI 기술을 공유하고, 에이전트 AI 서비스 운영, 성능 최적화를 위한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선다. 국내 에이전트 AI 시장 선점을 위한 신규 사업도 함께 발굴한다. W&B는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AI 기업으로, AI 모델을 만들거나 검증할 때 그 과정과 결과를 추적 관

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제공한다.

LG CNS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 대상 '에이전트 AI 통합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에이전트 AI와 거대 언어 모델(LLM) 성능 최적화, 품질 모니터링 등을 위해 W&B의 AI 솔루션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W&B의 AI 솔루션 '위브(Weave)'는 AI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하도록 LL



LG CNS CTO 박상엽 상무(오른쪽)가 W&B CEO 루카스 비왈드와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 CNS

M 성능을 평가·검증하는 솔루션이다. /김현정 기자

과기부 3G 가입자 수 급감 조기종료 가능성 커져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급감해 전체 휴대폰 회선에서 1% 미만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3G 서비스의 조기종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선부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3G 회선 가입자 수는 52만8335명, 데이터 사용량은 21테라바이트(TB)를 기록했다.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6% 줄어든 수치다. 전체 휴대폰에서 3G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선은 0.9%까지 떨어졌다.

과기부는 올 6월까지 3G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종료 의사를 내면 남은 이용 자 보호 대책 마련에 들어가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이 유지 입장을 내놓으면 과기부는 12월 주파수 재할당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급락 후 회복 패턴 기대감”... 美 주식형 펀드에 ‘뭉치돈’

북미 펀드 180개 설정액 25.5조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4.4조 증가
 “중장기적 ‘안정적 투자처’ 판단”
 “韓 증시, 10년간 박스권 머물러”
 韓·中 펀드 높은 수익률에도 하락



ChatGPT로 생성한 미국 증시에 돈이 유입되는 이미지.

미국주식형펀드로자산가들의뭉치돈이 몰리고 있다. 자산가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크(PB) A씨는 “과거 고도성장을 경험한 60·70대 자산가는 성장이 점차 둔화하는 국내 경제와 격화하는 국내 정치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고 말한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설정된 북미 주식형 펀드(180개)의 설정액은 총 25조 4989억원으로, 최근 3개월 동안 4조 4206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1040개)의 설정액은 1조 177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중국 펀드에서 24억원이 빠져나갔다. 또한 인도(1332억원), 베트남(369억원), 일본(252억원)에 투자하는 국내 설정 주

식형 펀드들도 모두 설정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와 중국 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빠져나갔으나 북미 주식형 펀드는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개월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7.36%, 중국 펀드는 15.68%를 기록하며 북미 주식형 펀드(-6.67%)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직접 투자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99억7565만달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과 중국 증시의 반등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머물렀던 반면 미국 시장은 급락 후 회복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는 점이 투자자

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며 “펀드 수익률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펀드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판단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아 현재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아 비중을 확대하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은퇴 준비를 위한 자금도 미국을 향한다. 지난해 KCGI자산운용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은퇴 준비를 위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할 때 선호하는 펀드 유형은 미국 위주의 해외주식형 펀드가 67%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국내 주식형 펀드 38%, 타깃데이트펀드(TDF) 28%, 채권형 펀드 14% 등의 순이었다. 미국 위주의 해외 주식형 펀드를 꼽은 응답자는 전년보다 4%포인트는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 응답자는 17%포인트 감소했다. KCGI자산운용은 “2023년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키우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국가 중 하나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된 결과”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국거래소 밸류업 공시 시행 후 총 124곳, 4.9% 참여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말 밸류업 공시(기업가치제고 계획)가 시행된 이후 코스피에서 101개사, 코스닥 23개사 등 총 124곳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체 기업의 4.9% 수준이다.

시장별 공시 이행률은 코스닥보다 코스피 기업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들은 전체의 11.9%가 참여했으며, 코스닥은 1.4%만 밸류업 공시를 진행했다. 밸류업 공시기업의 시가총액 비중도 코스피는 45.3%, 코스닥은 2.5%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가 큰 코스피 상장기업 중심으로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모습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채 중심의 공시책임자·담당자 대상 교육·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특히, 조직이 영세한 중소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밸류업 컨설팅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는 5월 중으로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과 함께 공시 우수사례와 주요 특징이 포함된 백서를 발간해 더 많은 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외국인 ‘사자’... 삼성전자, 5개월 만에 ‘6만전자’ 회복

外人, 이달 8824억 가량 순매수
 2.91%오른 6만200원 거래 마감



/삼성전자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6만원 고지’를 5개월여 만에 다시 밟았다.

20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91%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으로 6만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 15일(6만 1000원)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의 ‘사자’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8824억원가량 순매수하며 국내 종목 중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

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현재 메모리 산업은 레거시 반등 기대감 형성의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세적 반등까지 이어진다고 확신하기에는 이

른 구간이라 판단하지만 주가가 12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 1.0배로 밴드 최하단에 있어 주가 하락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HBM)보다 낸드(NAND), 일반 DDR5 등을 선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4년 만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의 판매 호조와 폴더블폰의 인기 덕분이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6129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전

분기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갤럭시S25 시리즈 출시가 판매량 증가에 기여한 가운데 특히 고가 모델인 울트라 모델의 판매 비중이 46%로 높았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연간 판매량은 3800만대로 전작인 갤럭시 S24 판매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며 추가로 2분기에 슬림 모델인 S25 엣지가 출시돼 연간 판매량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하반기에 출시되는 폴더블폰의 판매 증가에도 주목했다.

박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2억3200만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키움증권 장애인의 날 맞아 내달 19일 ‘키움런’

키움증권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단축마라톤 대회를 연다.

키움증권은 다음달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일원에서 ‘2025 키움런’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단법인 ‘무의’가 개최하고, 키움증권은 메인 후원사로서 행사 비용을 부담한다.

이달 20일부터 키움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2025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2만 5000원이다. 키움증권은 참가비와 동액으로 추가 기부한다. 참가비와 키움증권 측 추가 기부액은 전액 무의에 기부돼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에 쓰인다.

러닝 코스는 5km와 10km 두 가지다.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기념 메달을 수여한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러너를 고려한 공간과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유사시 이송할 수 있는 휠체어탑승가능 차량,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이용 가능한 탈의실, 발달장애인 심신안정실 등을 운영한다. /원관희 기자

“웹툰·MBTI 활용, 2030세대 투자이해 도와요”

키움증권, 웹툰 기업분석 ‘리포툰’
 토스증권, 분석자료 AI 음성서비스
 KB·상상인증권, MBTI 활용 설계

(카툰)의 영문을 합성한 말이다.

키움증권은 “기존 증권사 리포트가 텍스트 중심으로 투자 전문 용어가 많아 투자자들이 어렵게 느낄 것이라 판단해 이 같은 웹툰 형식의 리포트를 기획했다”고 했다. 리포툰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가 만화캐릭터로 등장해 개별 기업들의 특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토리 내에서 애널리스트의 전문 분야와 경력 등 프로필을 소개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에서는 읽는 것을 넘어 들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방대한 분량으로 발행되는 조사분석자료(건당 약 50p)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했다”며 “음성 콘텐츠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것으로, 듣는 것이 더 편한 유저들이 잘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MPTI 투자 유형’을 자체적으로 설계해 개인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MPTI는 ‘마블론 콘텐츠 선호지표(M-able contents Preference Type Indicator)’의 약자로, KB증권 앱을 통해 접한 콘텐츠를 토대로 16개 성향을 분류했다. 하우

성 KB증권 디지털사업총괄본부장은 “고객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기존 설문 방식보다는 고객의 공감대 형성을 높이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상상인증권도 ‘MBTI별 리포트’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들을 MBTI 성격 유형과 어울리도록 16개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상상인증권 관계자는 “주린이들이 더 선호할 만한 콘텐츠로 제작했고, 객관적이고 쉽게 종목에 접근하되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맷”이라며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등 일반 기관의 매니저들이나 기관장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범용화된 콘텐츠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시놉시스·앤시스 합병... '자산 매각' 조치로 조건부 승인

공정위,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 보호 합병 후 시장지배적 지위 우려 커져 해외 경쟁당국과 협력, 국제 심사 진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기업 결합을 우리 경쟁당국이 자산 일부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놉시스(시놉시스 인코퍼레이티드)가 앤시스(앤시스 인코퍼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 달러, 약 50조원)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으로, 양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또는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놉시스 인코퍼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퍼레이티드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의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

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 심사했다.

3개 시장은 공통적으로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사업 영역이 중첩돼, 이른바 수평결합이 발생하는데,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시놉시스와 앤시스가 이들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양사 기업결합 이후 합산 점유율은 60~80%, '광학 소프트웨어'는 90~100%, '포토닉스 소프트웨어'는 55~75%로 모두 과반을 훌쩍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된다.

또 종전에 양사 사이에 존재하던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는 점, 두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외 고객사들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선택지가 축소되고, 이들 회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3개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해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놉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한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시정조치는 반도체 칩과 광학,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

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애플, 구글, 퀄컴, 인텔 등 해외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해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심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두 회사 기업결합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 영국, 일본 경쟁당국이 자산 매각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고, 미국, 중국, 대만, 터키 경쟁당국은 아직 심사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전력산업, AI로 혁신 선도주자 될 것”

한전-서울대-KT

특화 AI 개발·실증 위한 업무협약 에너지·AI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한국전력과 서울대학교, KT는 지난 19일 서울대에서 '전력산업 특화 AI 개발·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먼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전력산업 특화 AI 솔루션·보안시스템 구축안'을 마련해 실증함으로써, 첨단 생성형 AI의 학습·추론 기능 등을 활용해 전력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및 AI융합형 전문인력 양성과 AI 기반 에너지 신사업·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연관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단계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관별로 한전은 전력산업 특화 AI 개발·활용 기본 방향 및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AI 기반 융복합 신사업모델 발굴·R&D·실증 총괄을 맡는다. 서울대는 전력시스템 선진화 전략방향 제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전력산업 특화 AI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유희림 서울대 총장(가운데), 김영섭 KT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보안기준 정립, 전문인력 양성을, KT는 보안기술 적용 클라우드 AI 모델 연계 실증, 최적 AI 솔루션 제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AI의 예측력과 실시간 대응력을 활용해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고객 서비스 혁신 및 IT 등 타산업과의 신사업모델 공동개발 등 범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금부터 인공지능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생태

계 전반의 AI 대전환과 미래 도약의 기회를 적극 모색할 때"라며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퍼스트 무버로 자리 잡고,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 기관은 에너지·AI 융합 프로젝트의 협력 범위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에너지·AI 특화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해외 시장 공동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지역거점 반도체 인재 양성”

'반도체인력양성센터' 개관

한국폴리텍대학은 20일 충북 청주시 청주캠퍼스에서 반도체 전문 교육센터인 '반도체인력양성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인력양성센터는 청주캠퍼스 내 연면적 2149㎡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 조성된 500㎡의 첨단 클린룸에는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300mm 웨이퍼 공정 장비를 갖춘 실습 공간이, 2층에는 반도체실습실, 강의실 등을 갖췄다. 반도체 양산 팹에 준하는 환경에서 반도체 전 공정 특화 실습과 첨단 장비 요소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 현장 실무형 반도체 인력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실제 청주캠퍼스 반도체 관련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생들의 지난 5년간 취업률은 97.7%를 기록하며, 충북지역 반도체 기업 인력난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은 급증하는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도권(반도체융합, 인천, 성남), 충청권(아산, 대전, 청주), 영호남권(대구, 광주, 부산) 등 지역별 거점 캠퍼스를 지정해 지난 2년간 20개 학과를 신설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

체 인력은 2021년 기준 17만7000명에서 2031년 30만4000명까지 늘어나 12만7000명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올해는 1965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며 3개 학과를 추가로 신설해 지역 맞춤형 반도체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계열 학과는 2024년 대학정보공시에서 취업률 78.5%, 유지 취업률 94.1%를 기록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산업 구조 전환에 맞춰 반도체,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을 매년 적극 추진해왔다"며 "현재까지 84개년 신설 학과를 2027년까지 100개 목표로 해 산업 현장과 지역의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미식계 아카데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농식품부, 서울서 2년 연속 개최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오는 22~26일 닷새간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공동 주관하는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아시아 지역 50대 레스토랑을 선정·발표하는 시상식이다.

시상식과 함께 베스트 50 담화에서는 조리장과 식품·음료 업계 관계자, 미디어 등이 미식 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시상식 전야제인 '셰프들의 만찬'에서는 초청된 조리장들이 모여 개최지인 한국의 음식과 식문화를 즐기고 소통한다. 2년 연속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참석자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시상식 전 발표된 아시아 지역 51위부터 100위 레스토랑에는 본앤브레드(51위)를 비롯해 솔밤(55위), 스와니에(57위), 알라프리마(61위), 권숙수(62위), 정식당(90위) 총 6곳의 한식 레스토랑이 포함됐다.

올해 한식 레스토랑인 밍글스가 미쉐린 3스타를 획득하고 다양한 한식당이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렸다. 농식품부는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시상식에서 발표될 50위권에 한식 레스토랑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5일 대국민 한식 홍보행사 및 한식 워크숍을 '한국의 집'에서 개최한다. 일반 대중에게 세계 시장에 자리 잡은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식 토크콘서트와 한식 마켓도 운영한다.

베트남 호찌민 인근에 물류센터 조성

해수부, 부지면적 5만5553㎡ 규모

해양수산부가 베트남 호찌민 시 동쪽에 자리한 교역요충지에 우리 기업을 위한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 소재 연착(Nhon Trach) 6공단 부지에서 복합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센터는 부지면적 5만5553㎡(1만6804평), 연면적 2만6168㎡(7916평) 규모의 물류센터 2개 동(상온물류센터 1개 동, 저온물류센터 1개 동)으로 조성된다.

해당 센터는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를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베트남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이다.

물류센터가 들어설 동나이성 연착공단은 호찌민, 나트랑 등의 주요 시장과 인접하고 깃라이 항, 까이펄 항, 통탄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베트남 남부 권역의 물류 중심지이다. 특히 연착공단에는 우리나라 대형 및 중소형 화주들이 밀집해 있어, 물류센터 완공 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우수한 교역환경을 보유해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해 있는 시장"이라며 "공동물류센터 조성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앙회화대전

수상작가

초대그룹전

2025.3.20_{Thu}-3.29_{Sat} Gallery **오름**



대한민국 미술의

가치
같이

+

강화윤 · 김은정 · 김환호 · 류수정 · 송인회 · 안현 · 오무일 · 오상미 · 오진아 · 오창희 · 이승민 · 이은영 · 장영아 · 정유나 · 정철휘 · 조현주 · 최종현 · 함승희

주최 Gallery **오름** 후원 **오름** 동성제약 신안개발 · 갤러리아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 관람시간 11:00-19:00 *월요일 휴관

강주호 “교실 CCTV 설치법안 반대·교원 실질적 보호 우선”

(한국교총 회장)

하늘이법, 교사 교육활동 위축시켜 교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보호 학급 학생 수 상한 등 과제 제시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40대 회장이 교실 CCTV 설치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바비엔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 회장은 ▲학생 안전 및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폐지 ▲악성 민원 및 무분별 신고 관련 교원 보호 후속 입법 ▲학교 내 CCTV 설치법안 반대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골자로 입장을 밝혔다.

◆학교 내 CCTV 설치, “학생·교사 인권 침해”

지난달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CCTV를 설치하는 내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바비엔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

용을 담아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하늘이법’을 두고 “학교가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인권,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을 교원에게서 앗아가는 법안”이라며 “교실 CCTV 설치법안은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으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총이 요구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담보 못하면 중단해야”

학생 사고 책임 관련으로 초등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사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히려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의 행정업무 분리도 촉구했다.

이밖에 강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원 정치기본권 및 공무담임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입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교사 81.8%,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85.6% “CCTV 설치법안 반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0.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2.5%)고 부정 응답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1.5%)고 응답했다.

올해 선생님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나 돼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에 달했다. 반대 이유는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서울 전역으로 확대

미취학 아동 시간제 보육 서비스 내달 1일부터 9곳 추가 지정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병원 진료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운동 등 재충전 시간이 필요할 때 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양육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9곳을 추가로 지정해 17개소로 확대하고, 연내 25개 전 자치구별 1개소씩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월 6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부터 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달 기준 지금까지 총 3177건, 1만3009시간의 이용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4월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9개소는 ▲중구 신당동어린이집 ▲용산구 효창어린이집 ▲강북구 꿈나무어린이집 ▲노원구 향기어린이집 ▲서대문구 마미어린이집 ▲양천구 흥익어린이집 ▲강서구 구립숲속나라어린이집 ▲구로구 새

날어린이집 ▲동작구 구립고은어린이집이다.

신규 운영 어린이집은 4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에서 예약가능 하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유연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육아는 부모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쪽방 주민에 제철 식재료 제공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 시범운영 하이트진로 정기후원으로 진행

서울시가 쪽방 주민들에게 제철 식재료 ‘꾸러미’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서울역 쪽방촌 온기창고에서 ‘비타민 프로젝트’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정기후원으로 진행되는 온기창고 지원사업으로, 이날 비타민 꾸러미 250개를 시작으로 4월부터는 매달 700개씩 전달될 예정이다.

‘온기창고’는 기존에 선착순, 줄서기 방식으로 이뤄졌던 쪽방촌 후원 물품 배부 방식에서 벗어나 쪽방 주민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져가는 서울시 운영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90%가 1인가구인



서울시가 19일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에게 신선 제철을 제공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전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정춘현 서울시 복지기획관,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 서울역쪽방상담소 유호연 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데다 취사 시설 등이 마땅치 않아 제철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쪽방 주민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해 온 하이트진로의 후원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번달 ‘비타민 꾸러미’에는 사과·한라봉 1개씩과 냉이, 대파, 감자, 양파 등 7000원 상당 식품이 들었다. /이현진 기자

정원감축·통폐합 대학에 예산 추가배정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해당 대학 유연한 사업비 운용 지원

교육부가 정원 감축,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을 한 대학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전공 학과를 확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넓힌 대학에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됐다.

2025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곳, 전문대학 118곳으로, 총사업비는 대학과 전문대가 각각 7955억원, 5555억원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곳을 대상으로 424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해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계 추진목표를 25%로 유지한다. 다만 가산점은 수도권대는 10점에서 15점,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해 대학 참여를 유도한다.

정원감축,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등 일반대학에 300억원, 전문대학에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상수도 인프라 확충·현대화 추진

배수지 신·증설, 스마트 관리 시스템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인프라 확충과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구 유입 증가에 대비해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관 확충, 노후 상수도관 개량 및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우수율 개선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당 재개발 추진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에 대비해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주교배수지를 증설한다. 현재

2800㎡ 규모인 배수지를 4400㎡ 추가 확장하는 공사를 오는 6월 착공해, 2027년까지 총 7200㎡의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일산서구 대화동에 걸친 지역에는 1만㎡ 용량의 신규 배수지를 신설한다. 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율(수돗물 손실률) 개선과 체계적인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국비 112억 원을 포함해 총 241억 원을 투입, 급수 지역별 상수도 블록을 구축하고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있다. /고양(경기)=만성기 기자 ask9990@

홈플러스 사태 ‘반사이익’... 이마트·롯데마트 등 매출 ‘쑥’

이마트 1.3%, 롯데마트 22.2% ↑
홈플러스 카드매출 전년비 8.5% ↓
‘네이버 플러스’ 앱 100만건 다운

“매출변화 인과관계 단정 어렵지만
경쟁사 반사이익 가능성은 충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회생 신청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하며,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카드사 A사의 승인 실적을 분석한 결과, 홈플러스의 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의 매출은 증가했



11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다. 이마트는 1.3%, 롯데마트는 22.2% 매출이 늘었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는 장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를 포함한 통합 기준으로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과일 매출이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으며, 채소와 축산 부문 매출도 각각 14%, 10% 늘었다. 방문객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커머스 업계도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지난 12일 인공지능(AI) 기반 쇼핑 애플리케이션 ‘네이버플러스’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

이전은 출시 8일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을 돌파했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직 매출 변화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납품업체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안 심리가 커진다면, 다른 마트로 소비층이 이동하면서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 홈플러스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일부 납품업체와 납품 재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브리핑 자료를 통해 서울우유와 농심과의 납품 재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와 농심이 대금 정산 불안 문제로 납품 재개 조건으로 상품 대금의 현금 선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측은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협력사와 입점주들도 있는 상황에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납해달

라는 조건은 당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왔던 협력사인 만큼 현 상황에 대해 잘 소통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주요 식품 기업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본격 개시되자, 홈플러스에 납품을 일시 중단했다. 그러다 최근 오뚜기,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등은 홈플러스와의 협상을 통해 납품을 재개하고 있다.

한편, 이커머스가 홈플러스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마트 이용객 중 중장년층 비율이 높은 만큼, 2030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홈플러스 고객층을 얼마나 흡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롯데웰푸드, 브랜드 ‘파스퇴르 단백질+’ 론칭

액상형·파우더형 신제품 2종 출시
20여종 비타민·미네랄 함유 제품
한국인의 ‘영양 특성’ 맞춰 설계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단백질 기반의 균형 영양식 브랜드 ‘파스퇴르 단백질+(플러스)’를 론칭했다고 20일 밝혔다.

론칭과 함께 ‘파스퇴르 단백질+’ 브랜드는 액상형(RTD) 제품 1종, 파우더형 제품 1종 등 총 2종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단백질은 물론 일상 활력을 위한 멀티비타민과 미네랄을 균형 있게 배합했다. 20여 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한 제품으로, 한국인 영양 특성에 맞춰 설계해 연령대와 관계없이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온 가족이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진하고 고소한 ‘곡물맛’으로 출시한 액상형 제품은 단백질 12g을 함유하고 있다. 파스퇴르 전용목장에서 온 1급A 원유로 만들어 신선함과 풍부한 영양을 그대로 담은 제품이다. 진하고 고소한



롯데웰푸드가 단백질 기반의 균형 영양식 브랜드 ‘파스퇴르 단백질+’를 20일 론칭하고 신제품 2종을 선보였다.

미숫가루의 풍미를 더해 중장년층의 입맛을 고려했다. 한 팩 섭취 시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돕는 칼슘 505mg 포함 현대인의 건강한 일상에 필요한 멀티비타민 및 미네랄 20종을 채울 수 있다.

유당 분해 효소를 넣어 유당을 분해해 우유를 마시면 가스, 복통, 설사 등의 불편감(유당불내증)을 느끼는 사람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탄수화물 함량도 낮아 한 팩당 110kcal로 건강하게 설계됐다.

‘파스퇴르 단백질+’ 파우더형 1종은 ‘곡물맛’의 캔 제품으로 동식물성 단백질을 6:4의 비율로 균형 설계했다. 물 150~180mL에 제품 50g을 녹여 섭취하면 된다. 영유아식 카테고리에서 쌓은 파스퇴르만의 노하우로 3단계 건조 공법(MSD공법)을 적용해 찬물이나 우유에도 잘 녹는다. 1회(50g) 섭취 시 단백질 15g과 함께 멀티비타민 및 미네랄(칼슘, 철분, 아연, 마그네슘, 요오드, 망간) 18종을 보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영양 성분을 채웠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단백질 시장 규모는 약 45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8년 813억원에서 5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기존 단백질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설계한 ‘파스퇴르 단백질+’ 브랜드를 통해 시니어케어 시장부터 본격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카누 바리스타’ 누적판매 1000억 눈앞

동서식품, 50여년 커피제조 노하우
기존 캡슐대비 1.7배 많은 9.5g 담아

프리미엄 캡슐 커피 브랜드 ‘카누 바리스타’(KANU BARISTA·사진)가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 열풍을 타고 급성장 하고 있다.

20일 동서식품에 따르면 출시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아온 카누 바리스타는 올해 안에 누적 판매 금액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식품의 50여년 커피 제조 기술력과 노하우로 선보인 카누 바리스타는 기존 에스프레소 캡슐 대비 1.7배 많은 9.5g의 원두를 담아 풍부한 양의 카페 퀴리티 아메리카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누 바리스타는 라이트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다크 로스트까지 로스팅 강도에 따른 캡슐 종류를 갖췄으며 디



카페인, 싱글 오리진을 포함해 총 13종의 전용 캡슐을 갖춰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2023년 11월에는 ‘에티오피아 예가 체프’ ‘콜롬비아 톨리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등 싱글 오리진 캡슐 3종을 출시했다. 싱글 오리진 캡슐은 각 대륙별 주요 커피산지의 지역 한정 원두를 최적의 방법으로 로스팅했으며, 각 캡슐에는 원두의 특징을 표현한 일러스트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했다.

/이세경 기자

롯데마트 “원하는 할인 품목에 투표하세요”

‘My 핫프라이스’ 2탄 투표 진행

롯데마트가 이달 26일까지 ‘My 핫프라이스’ 2탄 투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My 핫프라이스’는 고객 투표를 통해 할인 대상 상품을 선정하는 프로모션이다. 이번 2탄에서는 통조림햄과 참치캔이 투표 대상이며, 최종 선정된 상품은 내달 중 할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는 ‘롯데마트GO’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된다. 참여 고객 중 선착순 2만 명에게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앞서 진행된 ‘My 핫프라이스’ 1탄에

서는 쌀과 즉석밥 중 쌀이 선정됐으며 지난 2월 둘째 주 ‘정갈한 쌀’이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됐다.

한편, 롯데마트는 신선 식품과 생필품을 대상으로 최대 6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할인 품목에는 ‘잘풀리는집 순수화이트 화장지’, ‘다우니 섬유유연제 11종’, ‘후제 오리 슬라이스’ 등이 포함됐다.

‘강도다리 세꼬시’, ‘완도 활천복’ 등 일부 수산물과 과일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 외에도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큰 새우튀김’, ‘올뉴 새우초밥’, ‘꽃보 다오징어 슬라이스’ 등 일부 즉석식품도 행사 기간 할인가에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대상 ‘베스트온’ ‘마트 직배송’ 도입 배송 서비스 개편

대상의 종합 식자재 전문 온라인몰 ‘베스트온’이 더욱 신선한 제품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마트 직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베스트온’은 대용량 식자재 유통몰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식자재를 주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마트 직배송’ 도입을 통한 배송 서비스 전면 개편으로 제품의 신속한 출고는 물론, 신선도까지 보장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유한양행, 보통주 500원 현금배당 실시

유한양행, 제102기 정기주총

유한양행이 주주 가치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유한양행은 ‘제10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실적으로 별도 기준 매출액 2조84억원, 영업이익 701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 등을 보고했다.

또 유한양행은 의안심사에서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 우선주 510원의 현금배당(총 375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현금 배당이다. 유한양행은 2024년 결산 현금배당 규모를 전년도 주당 450원에서 올해 500원으로 11% 증액한 것이다.

이익배당 관련 정관도 일부 변경했다. 매결산기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

급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해당 정관 일부 변경은 20일부터 시행한다.

조옥제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주주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지난 8월 국산 항암제 최초, 병용요법 1차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순매출액 2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지난해 10월 국내 제약 업계 가운데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를 강조해 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高성장’ 올리브영·‘신흥강자’ 에이피알... K뷰티 재편 속도

CJ올리브영 연 매출 5兆 눈앞
日·美 등 글로벌 유통시장 공략

에이피알 美 광고로 브랜드 각인
아모레퍼시픽 첨단 기술력 집중
LG생활건강 기후위기 대비 나서

국내 뷰티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K뷰티 전용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은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기존 뷰티 브랜드 기업들을 앞지르고 있고, K뷰티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에이피알은 외형 확장을 이뤘다며 뷰티 대기업 뒤를 따라 붙고 있다.

20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K뷰티’ 전용 유통업체 CJ올리브영은 올해 연 매출 5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실적으로 매출 4조 7899억원, 당기순이익 478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4%, 당기순이익은 38%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올리브영이 국내 뷰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1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15%, 2022년 12% 등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올리브영이 지난해까지 구축한 국내 올리브영 점포수는 총 1300여



올리브영 명동태운점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K뷰티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고 있다. /CJ올리브영

개에 달한다.

또 올리브영은 최근 일본,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유통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올리브영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글로벌몰에서 진행한 올영세일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주문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7% 급증했다. 올리브영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몰은 지난해 말 기준 246만 명의 글로벌 회원을 보유한 K뷰티 역(逆)직구몰이다.

국내 올리브영 매장에서 K뷰티를 체험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국으로 돌아

간 후에도 글로벌몰을 통해 한국 화장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몰은 최신 K뷰티 제품을 비롯해 웰스케어 제품, K팝 등 1만 종 이상의 상품을 취급한다. 기업공개 1년만에 증권 기업으로 부상한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은 해외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에이피알은 오는 23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주요 도심 내 옥외 전광판에 ‘메디큐브’ 광고를 송출하는 등 세계 최대 뷰티 시장에서 K뷰티 대표 브랜드 입지를 각인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이번 광고는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 3곳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도심 내 목시 호텔 전광판, 한인타운 및 기타 중심지 전광판 등 총 6곳에서 공개된다. 특히 미국 랜드마크인 뉴욕 타임스퀘어는 국내 대기업부터 전 세계 굴지의 브랜드들이 광고를 집행하는 곳이다. 로스앤젤레스 또한 유명 관광지인 만큼 곳곳에서 에이피알 브랜드 메시지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에이피알은 ‘누구나 빛날 수 있다’는 주제를 설정해 성별, 나이, 피부색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계획이다. 남녀노소 및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에이피알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해 피부를 가꾸는 장면들이 담겼다.

에이피알 측은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를 선보인 지 10년 만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됐다”며 “앞으로도 K뷰티 대표 주자로서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을 앞세워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정통 뷰티 대기업들도 올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해 매출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제품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력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내 뷰티 시장에서 인공지능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메이크온을 통해 신제품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를 출시했고, 특허청에서는 ‘아모레 챗’ 서비스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아마존 인공지능 솔루션 스타트업 ‘에이디디에스’에도 지분 투자했다.

LG생활건강도 새로운 뷰티 패러다임을 대비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변화하는 기후, 진화하는 뷰티’를 주제로 ‘기후 적응형 뷰티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LG생활건강은 기후 위기를 모른 소비재 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생활건강은 기후 변화로 달라진 소비자 생활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 국내 뷰티 브랜드사 관계자는 “매출 외형 측면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 반응이나, 행사 현장에서도 K뷰티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소비 심리와 관심이 기업 경쟁력이나 K뷰티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정종민 “콘텐츠 중심 성장동력 발굴할 것”

(CJ CGV 대표)

‘타운홀 미팅’ 통해 구성원들과 소통
자체 콘텐츠 확보 위한 대안 필요

정종민 CJ CGV 대표(사진)가 취임 후 첫 소통의 시간을 갖고, 훌륭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CGV는 지난 19일 정종민 대표가 CGV용산아이파크몰 12관에서 구성원들과 회사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첫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원들과 ‘월간 소통의 장’을 진행했던 CGV는 앞으로는 매월 정례적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종민 대표는 “구성원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성장 동력을 발



정종민 CJ CGV 대표

굴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며 “성과에 대한 적시 인정과 보상도 강화해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화산업 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당부했다.

정 대표는 “국내 영화산업이 다소 침체되어 있지만, 찬바람이 불더라도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탄탄한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SCREENX, 4DX 등 CGV만이 할 수 있는 미래가 유망한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고잡이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 CGV만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뿐만 아

니라 글로벌에서도 극장을 보유한 우리만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라며 “글로벌 극장사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극장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제는 콘텐츠 중심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며 “ICECON 콘텐츠를 비롯해 영화 이외에 고객이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확장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광동제약, 약국전용 유산균 ‘컬처렐’ 선보

신제품 ‘헬스앤웰니스·키즈츄어블’

광동제약은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으로 글로벌 유산균 브랜드 ‘컬처렐’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컬처렐 헬스앤웰니스’와 ‘컬처렐 키즈츄어블’이다. 모두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GG(LGG) 유산균으로 구성된 100% 단일 균종 제품이다. LGG 유산균은 세계적으로 1900편 이상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등 다수의 인체적용시험에서 그 기능성을 입증했다.

컬처렐 헬스앤웰니스는 식물성 캡슐에 100억CFU(유산균 측정 단위)의 유



‘컬처렐 헬스앤웰니스’, ‘컬처렐 키즈츄어블’ /광동제약

산균을 담았다. 성인 기준 1일 1회 1캡슐을 섭취하면 된다. 컬처렐 키즈츄어블은 50억CFU 유산균을 함유한다. 어린이들이 즐겁게 섭취할 수 있도록 달콤한 베리 풍미의 츄어블정으로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1일 1정을 물 없이 씹어 먹으면 된다.

/이청하 기자

“‘센스밸런스 플러스’로 여성건강 관리해요”

유한양행, 여성 생활·영양 맞춤 강화

유한양행은 여성건강을 위한 종합 영양보충제 ‘센스밸런스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센스밸런스 플러스’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D, 마그네슘, 셀레늄, 엽산, 아연 등 기존 제품의 핵심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영양 필요에 맞춰 기능성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철분, 판토텐산, 비타민E, 크롬 등 4가지 성분을 추가해 총 16가지 성분으로 처방됐다. 철분은 체내 산소 운반과 혈액 생성을 돕고, 판토텐산은 신체 활력을 개선한다. 비타민E와 크롬은 각각 항산화, 혈당 조절 등에 관여한다.



센스밸런스 플러스 /유한양행

이번 신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알약 크기도 줄여 섭취 부담을 줄였다. 하루 한 알 복용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높은 복용 편의성까지 갖췄다. 또 10정 단위로 개별압박포장한 총 30정의 소용량, 통 안에 든 75정의 대용량 등으로 구성됐다. 각각 가방 속에 휴대하거나 책상, 식탁 등에 배치하기 적합하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유럽 맞춤형 직판 전략 성과

이탈리아서 스테키마·유플라이마 낙찰

셀트리온이 유럽 주요 5개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서 자카면역질환 치료제를 앞세워 입찰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는 물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도 이탈리아 주정부의 주요 입찰에 잇달아 낙찰되며 성과의 포문을 열었다.

셀트리온 이탈리아 법인은 최근 피에몬테 및 발레다오스타, 리구리아, 사르데냐 등 4개 주정부에서 개최된 우스테

키누랍 입찰에서 스테키마 출시 2개월 만에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의 합산 규모는 이탈리아 우스테키누랍 시장의 약 10%로, 2028년까지 스테키마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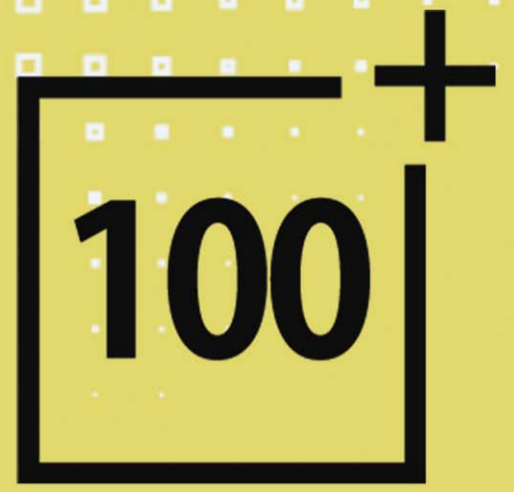
더불어 이탈리아 21개 주정부 가운데 핵심 지역인 라치오, 롬바르디아 및 움브리아에서 개최된 아달리마 입찰에서는 ‘유플라이마’가 낙찰됐다. 이번 달부터 라치오 및 롬바르디아에는 향후 3년간, 움브리아에는 2년간 유플라이마가 공급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을 대표하는 램시마 제품군(IV-SC)에서도 수주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 먼저 국내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등극한 ‘램시마’가 최근 움브리아주 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하며 2027년까지 2년간 공급될 예정이다. ‘램시마SC’도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인플릭시맙 SC 제형 입찰 시장이 없었던 사르데냐 주정부에서 해당 시장을 신설하면서 이탈리아 전역 모든 주정부에서 입찰이 가능해졌다.

셀트리온 이탈리아 법인이 입찰 경쟁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게 된 배경에는 맞춤형 직판 전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양현봉 강북다인치과 원장, 15년간 1만여회 무료진료

‘가연·함께아시아’ 이끌며 진료 활동 외국인 노동자 등 삶의 질 향상 기여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펼쳐온 치과 원장이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올해로 개원 25주년을 맞은 강북다인치과의원 양현봉 대표 원장은 의료봉사팀 ‘가연’과 비영리 민간단체인 ‘함께아시아’를 이끌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1만여 회의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했다.

강북다인치과 의료봉사팀 ‘가연’은 2010년 발족된 직후 무료 치과 진료 봉사를 시작해 2011년에는 서울 수유동에 화계사 내에 ‘이주민 무료 치료 진료소’를 설치했다. 당시 이동 차량을 이용한 무료 치과 진료나 휴일 진료 봉사를



양현봉 강북다인치과의원 대표원장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함께아시아’ 진료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

는 있었지만 특정 지역 사회와 의료진이 힘을 합쳐 무료 진료소를 개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17년에는 양 원장의 뜻에 공감하

는 지역 치과 의원, 의료봉사 팀 등과 힘을 모아 의료봉사 단체 ‘함께아시아’를 설립했다. 함께아시아는 양 원장을 비롯 치과의사 12명, 치과 위생사 11명, 치과기공사 3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구강 검진부터 스케일링, 충치 치료, 잇몸 및 신경 치료, 발치, 보철 및 틀니 치료까지 무료로 진료하고 있다.

양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함께아시아는 2018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NPO)로 정식 등록되었다. 이후 큰 호응을 받게 되면서 2021년 11월부터 매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격주 일요일에도 무료 치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65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문제까지 심각해진 한국의 경우 이주 외국인 노동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 원장이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치아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양현봉 원장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언어 장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강한 치아와 밝은 미소를 되찾을 때까지 함께아시아 의료진과 함께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 원장이 진료하는 함께아시아 진료소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하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우리금융그룹, 원각사 무료급식소 후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에프앤이(이하 원각사) 무료급식소에 300만원을 후원하고 따뜻한 식사를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김건호 우리금융에프앤이 대표이사(앞줄 왼쪽 두번째)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SK케미칼-RIST, 기술협력 MOU 체결

SK케미칼은 지난 19일 SK케미칼 울산 공장에서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스마트 안전 분야 연구 및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왼쪽부터)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 유병욱, SK케미칼 유호섭 생산인프라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케미칼

에쓰오일, 마포 지역사회 2.3억 후원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기부금 전달

에쓰오일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펼치고 있다.

에쓰오일은 마포구 소재 에쓰오일 염리동주유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기부금 2억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유소 나눔 N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과 친밀한 에쓰오일 주유소를 활용해, 인근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전국 200여 개의 에쓰오일 주유소가 참여해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등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에쓰오일의 핵심 가치인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왼쪽부터) 에쓰오일 안중범 마케팅총괄 사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소재 에쓰오일 염리동주유소에서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필요한 곳에 진정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힘이 되는 기업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롯데온 “‘키즈 스카이런’ 도전해보세요”

50개팀 선발 … 26일 당첨자 발표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국내 최고 높이의 수직 마라톤 대회인 ‘스카이런’의 특별 이벤트인 ‘키즈 스카이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스카이런’은 롯데몰산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높이의 수직 마라톤 대회로 롯데월드타워 123층, 총 2917개의 계단을 오르는 행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티켓 오픈과 동시에 5분 만에 매진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롯데온은 보다 많은 고객이 스카이런을 참여할 수 있도록 롯데몰산과 함께 ‘키즈 스카이런’을 운영한다. ‘키즈 스카이런’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전하는 스카이런의 별도 부문으로, 성인 보호자 1인과 자녀 1인이 한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다. 총 50팀(100명)이 선발될 예정이며, 당첨자는 이달 26일 발표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포스코퓨처엠-GIST, 연구인재 양성 맞선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9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과 ‘이차전지소재 맞춤형 연구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왼쪽부터) GIST 임기철 총장, 포스코퓨처엠 홍영준 기술연구소장이 협약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부음

▲오홍석씨 별세, 강옥란씨 남편상·오재현(매일경제신문 경영경제연구소장)·오재관씨 부친상, 이희진씨 시부상 = 19일 오후 8시 20분,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2일. 032-580-6662.

▲유무성씨 별세, 민정녀씨 남편상, 유덕종·유길종씨 부친상, 이상현(금융감독원

부국장)씨 장인상 = 20일 오전 1시 30분, 경상국립대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22일. 055-750-8448.

▲이우소(전 현병차감·전 한전KPS 감사)씨 별세, 이주명(HMM 상무)·이수복(전 신림중학교 교사)·이경은·이경화·이수진씨 부친상 = 19일 오후 2시 52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2일. 02-3410-6920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임팩트 스타트업’ 모집

내달 9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접수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하 재단)이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13기에 참여할 ‘임팩트 스타트업’ 20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임팩트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활동으로 창출되는 가치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말한다.

재단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미래세대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몽구

명예회장(현대자동차그룹)의 뜻과 기업가정신을 반영해, 2012년부터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 등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과 임팩트 스타트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 13년간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13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임팩트 스타트업 창업가는 내달 9일까지 H-온드림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ysw@



LG U+, 한가함에 건전지 1.7만개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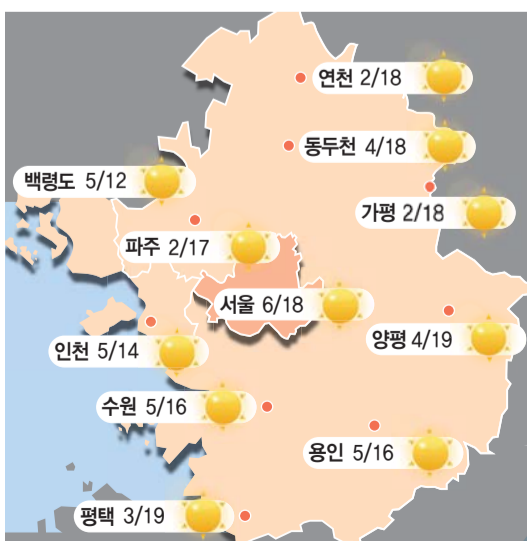
LG유플러스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한가함)에 건전지 약 1만7000개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명섭 LG유플러스 ESG추진팀장, 옥해정 대한상공회의소 ERT사업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오늘의 날씨

3월 21일 (금)
음력 : 2월 22일

수도권 날씨
6 ~ 1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중진공-섬산련, 섬유패션 분야 中企 지원

투자촉진·정책자금 지원 등 적극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와 손잡고 섬유패션 분야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섬산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비투자 위촉,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영난, 인력 부족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사진), 최병오 섬산련 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모색했다.

세부내용으로 ▲ 설비투자 촉진 및 정책자금 지원 ▲ 수출경쟁력 강화 ▲ 전문 인력 양성 ▲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탄소중립 실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미래엔, 한국교총장학회 1000만원 기탁

미래엔은 20일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장학단체인 한국교총장학회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왼쪽)과 신광수(미래엔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엔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당신에게 꼭 맞는 **아치트**”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퓨터매니저 소유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표혜미 서은교 | 황수빈 최우성 석우성 이규진 | 한재우 김도경 공민규 김록현 | 박나연 현지수 오미준 김정은 | 임영식 이선 박형석 최윤재

주최·제작 극만지우 협찬 yes24 사밀계절 티켓문의 interpark 티켓 공연문의 02.332.4902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BK 김병주의 사재 출연



이정희 역
西村브리핑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재 출연을 약속했다. 사재 출연이란 기업의 오너나 대주주가 자신의 사유 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이나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내놓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후 MBK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망가뜨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여기에 아무런 자구책 없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여론을 진화하고자 어쩔 수 없이 사재 출연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출연 금액이다. 시장에서는 1조 원대 사재 출연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턱없이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금액이 적을 것으로 보는 쪽은 사모펀드가 복수의 기관투자자(LP)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을 사들여 경영하는 위탁운용사(GP)라는 점을 들

고 있다. 위탁운용사는 재벌 그룹 회장 처럼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출연 금액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사재 출연 기준을 소상공인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제한하면서 현실적으로는 3000억원도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운영을 위해선 매달 3000억원대 매입 대금과 임대료, 인건비, 기타 비용 등 총 4000억~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기업회생 신청 후 협력사들이 현금 정산 전환과 선납 등을 요구하고 있어 1조원대 사재 출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사재 출연 역사는 뿌리가 깊다. 군사 독재 시절엔 그냥 "투자가 필요해"로 족했다. 그러면 회장들이 알아서 계획도 세우고 돈도 조달했다. 가끔 반항하는 기업은 '즉결 처분'하면 그만이었다. 어르기도 단 뺨 치기가 주었다.

사재 출연이 두드러졌던 시기는 외환위기가 터진 김대중(DJ) 정권 때다. DJ의 '고통 분담' 이 한마디에 재벌들은 줄줄이 사재를 털어야 했다. 은행 빚을 많이 쓰고 있는 데다 경영 잘못한 죄, 회사 돈 빼먹은 죄까지 얹어지는 통에 당시 재벌들은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 후 사재출

연은 재벌 계열사의 구조조정이나 부실처리 문제가 닥쳐 일이 꼬일 때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했다.

사재 출연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삼성자동차 빚 처리를 위해 이근희 회장이 내놓은 2조8000억원어치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대표적인 예다.

대우그룹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김우중 회장은 '기업주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1조3000억원의 사재를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담보가 아닌 사재 출연'이라며 채권단이 알아서 처분하도록 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1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태영그룹 대주주 일가가 484억원의 사재를 내놓은 것을 들 수 있다.

사재 출연은 '지분만큼 책임진다'는 자본주의 원칙을 정면에서 거스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국민적 저항은 없었다. 경제 살리고, 국민 세금 아끼고, 악덕 기업주 혼내 준다며 오히려 박수를 받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의 부실 원인 대부분이 MBK의 경영 잘못이거나 유용 등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김 회장이 사재를 털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ljh@metroseoul.co.kr

사모펀드에 재미까지 사냥 당한다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사모펀드(PEF)는 흔히 '기업사냥꾼'으로 불린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의 존재감이 높아지면서 재미(개인 투자자)들까지 사냥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들 수 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4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다. 이후 실행자들은 사실상 채무 불이행 상태인 'D'로 다시 강등하면서 기업가치가 폭락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회생 절차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김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제 사건의 쟁점은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으로 집중되면서 과거 2011년 LIG 사태, 2013년 동양 사태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LIG와 동양그룹 모두 차입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다만 동양·LIG 사태는 기업의 자체적인 문제였고,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을 실패한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이른바 '먹튀'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활동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려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말까지 투자자들에게 '홈플러스 채권'을 판매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린 홈플러스 채권 규모는 2000억원,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들어간 채권은 3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피해자 대부분이 재미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을 낸 후에는 발을 빼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사모펀드의 기업사냥 희생양으로 재미들이 함께 묶이는 것이다.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모펀드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godhe@

오늘의 운세 3월 21일 (음 2월 22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자신만 너무 사랑하지 마라. 48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될 먼저 해야 하나 고민. 60년생 마치 용이 승천하는 기분으로 지나라. 72년생 연인에게 너무 간섭하면 거리감만 생긴다. 84년생 상처는 나어도 흉터가 거슬린다.
- 소** 37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 좋은 재운이 들어온다. 49년생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61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열심히. 73년생 끝까지 참는 것이 내일의 행운을 가져게 된다. 85년생 농친 고기가 더 커보이는 법이니.
- 호랑이** 38년생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50년생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62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고 한숨이 난다. 74년생 약한 것이 중간에 꺼면 피해를 보게 된다. 86년생 옳은 일을 해도 시비 거는 사람이 많다.
- 토끼** 39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련된 일을 마무리. 51년생 분수를 알고 처신해야 탈이 없다. 63년생 매일 뜨는 태양이 오늘은 더 세롭다. 75년생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은 저야 한다. 87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슬기롭게 앉으라. 마음이 불편.
- 염** 40년생 아직 잘라내고 좋아하지 마라. 52년생 아귀도 주변에 나누어라. 64년생 지치고 힘들어도 가족을 생각하며 참아라. 76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제시하는 날. 88년생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지만,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 뱀** 41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아만 비옥한 땅이 된다. 53년생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참는 것이. 65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77년생 길 가다가 금덩이를 주운 운이니 황제. 89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벌 언덕이 필요.
- 말** 42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54년생 아니라고 생각 할 때 물러나라. 66년생 자녀들의 위위가 필요한 날. 78년생 주변 사람을 탓하지 말고 서류를 살펴보면 길이 보인다. 90년생 좋은 꿈을 얻고 싶다면 벌통을 준비해라.
- 양** 43년생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아프니 좀 쉬어라. 55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67년생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휴식. 79년생 보험을 들고 저금계획을 살펴봐도. 91년생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도 인생은 누구나 고독.
- 원숭이** 44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노를 힘껏 저어라. 56년생 욕심으로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68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80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 예도 신경 쓰자. 92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다.
- 닭** 45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는다. 57년생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69년생 기관지 질환이 의심된다. 81년생 복권에 당첨되려면 먼저 복권을 사야 하지 않겠는가. 93년생 동업자의 협조를 얻어 일을 풀어나가자.
- 개** 46년생 책을 보니 설득력이 생긴다. 58년생 욕심내지 말고 능력에 맞게 행동. 70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82년생 현실에 실망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도 자신의 실력을 갖춰야 긴 안목이 생긴다. 94년생 태평한 하루.
- 돼지** 47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 59년생 상대에게 불만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71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적으로 처리. 83년생 보라색이 행운을 준다. 95년생 평소부터 능력을 키워야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다.

김상희의四季 때를 맞춰서 걷기

양손에 딱을 친 고객분이 있었다. 사위는 고시에 합격한 공무원이었고 아들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 차장이었다. 여자는 꼭 원하는 게 있다고 했다 공무원인 사위와 대기업 간부인 아들이 모두 승진할 수 있도록 운세를 이끌어달라는 것이다. 사위와 아들의 사주를 살폈다. 고시 출신 사위는 관성이 빛을 잃고 그 운세가 쇠락하는 중이었다. 관성은 올해가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시나브로 시들고 있었다. 관성이 흔들려 관운이 불안하니 올해 승진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반면에 대기업 차장인 아들은 올해 길운이 들어오는 해이다. 길운이 힘을 펼치니 능력을 인정받고 넉넉히 승진할 것이다. 아들은 힘든 시기인데 운 좋게도 대운을 타고 관운이 들어오니 귀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위와 아들은 성격도 크게 달랐다. 사위는 욕하는 일이 잦고 아들은 차분하고 꼼꼼하다. 욕하는 성격은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직장 선후배와 부딪힐 일이 많다. 견제하고 질시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들은 주변 사람들과 척지 않는 성격이다. 맡은 일을 꼭 부러지게 해내고 책임감도 강하다. 이러니 신망이 두터워 도와주는 사람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사위와 아들의 사주와 성격을 이야기해주시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승진하면 좋겠지만 무리를 두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을 건넸다. 이미 두 손에 딱을 쥐고 있는데 지나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렇다고 사위가 마냥 승진을 못 하는 운세도 아니다. 올해는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명리는 때와 운세를 알려주는 학문이다. 운이 좋은 시기에는 성큼성큼 걸으면 되고 운이 그림자진 시기에는 조심조심 걸으면 된다. 때를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팔자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8	1	6	9	7	2	7
6	2	9	2	8	7	9	1	8
2	1	7	8	2	9	9	8	6
8	9	2	7	1	8	2	6	9
2	7	6	9	9	2	1	8	8
8	9	1	6	8	2	7	9	
7	6	9	2	9	8	8	2	1
9	2	8	8	7	1	6	9	2
1	8	2	9	2	6	8	9	7

8	1	9	7	2	2	8	6	9
2	6	9	9	8	1	7	8	2
8	2	7	6	9	8	1	2	9
7	8	8	2	2	9	9	1	6
9	9	6	1	8	7	2	2	8
1	2	2	9	6	8	9	7	8
2	9	2	8	7	6	8	9	1
6	7	1	8	9	9	2	8	2
9	8	8	2	1	2	6	9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3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부르고뉴 마리아주의 정석... 제철 한식재료를 만나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부르고뉴 와인과 음식 궁합

#'국룰(국민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만큼 통용되거나 유행하는 규칙)'을 깰 때가 되었다. 와인과의 궁합, 마리아주에 있어서 말이다. 예를 들면 '샤블리 와인엔 굴'도 물론 맞지만 이 작은 울타리에 갇혀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세상 와인이 다양한 만큼 어울리는 음식도 무궁무진하니 말이다. 아니다 싶었던 재료에 소스만 바꿔도 와인과의 궁합이 바로 마리아주의 세계다.

부르고뉴 와인협회(BIVB)가 부르고뉴 와인과의 마리아주 정석을 풀어냈다. 그것도 프랑스 요리를 기본으로 하되 제철 한식 재료를 적절히 활용해서 말이다. 요리는 시그니엘의 아니 알레노 셰프가 선보였다. 전날까지 와인과의



(왼쪽부터)부라타 토마토 에스푸마, 바닷가재 콩소메, 트러플을 곁들인 거위간 무스, 익힌 굴, 익힌 농어, 한우 안심 스테이크. /안상미 기자

함께 최종 테이스팅을 하며 요리 순서나 일부 생선 종류와 소스를 바꿀 정도로 공을 들인 페어링이다. 시작은 샤블리 와인이다. '샤블리, 도멘 루이 모로' 2023 빈티지로 부라타 치즈에 토마토를 같이 곁들였다. 도멘 루이 모로는 전형적인 샤블리 스타일이다. 청사과와 백복숭아 같은 과실향에 미네랄과 유질감이 잘 느껴진다. 좋은 산미가 토마토의 산미, 입안을 가득 채운 크림과 잘 어울린다. 집에서 따라하기 좋은 페어링이다. '이랑시, 뷔 드 쉐, 도멘 베레' 2021 빈티지는 캐비어와 성게알이 들어간 바

닷가재 콩소메와 함께 했다. 콩소메는 맑은 수프를 말한다. 피노누아 품종으로 캐비어와 마시면 비리지 않을까 했던 우려와 달리 볶은 과실미와 산미감이 잘 어울렸다. 이랑시가 낫설 수도 있겠다. 샤블리 바로 옆인 그랑 오세루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노누아 품종의 레드와인이 만들어지는 아펠라시옹(AOC·원산지 통제 명칭)으로 섬세한 아로마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샤블리, 비에이 빈뉴, 2023, 도멘 세귀노 보르데'는 푸아그라와 매칭했다.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이 80~100년에 달한다.

윤효정 소믈리에에 "보통 푸아그라에는 소테른 등 스위트 와인을 떠올리지만 본고장에서는 샤블리 와인과 푸아그라는 교과서같은 페어링"이라며 "한국에선 샤블리 하면 굴만 많이 생각하지만 푸아그라와 마시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몽파니 프리미에 크뤼, 본노브, 2020, 메종 올리비에 르플레브'와는 익힌 굴이다. 보통 소믈리에들은 굴이 나온다고 하면 오크 숙성한 와인은 피한다. 이번 페어링의 키는 소스인 홀렌다이즈다.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다 보니 오크 숙성 와인과 잘 어울릴 수 있었다.

이제 슬슬 메인 요리로 들어간다. 먼저 생선요리다. 서서히 익힌 농어를 된장 크림 소스에 곁들였다. 와인은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포레, 2020, 라메뉴팩추어-벤자망 라로쉬'와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볼로랑, 2020, 도멘 당리'다. 이번에도 키는 소스에 있다. 된장의 짭짤함에 버터같은 진한 풍미로 복합미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두 와인이 잘 어울렸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끌리마' 포레와 볼로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끌리마는 부르고뉴 지역 고유의 페루아를 정의하는 표현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다. 한우 안심 스테이크에는 레드 와인인 '마르사네, 끌로 뒤 로아, 2020, 도멘 뒤 비유 플레주', '본 프리미에 크뤼, 쿠세리아, 2020, 도멘 피에르 라베'가 따라왔다. 마르사네는 꼬뜨 드 누 지역 북단에 위치한다. 슈브레 샹베르랭이나 샹블 뫼지니 등의 유명세에 가려져 있지만 힘 있는 피노 누아를 잘 만드는 지역이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현대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28일부터 운영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8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 드라이빙 체험시설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의 2025 시즌 운영을 시작한다. 2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충남 태안 소재 한국테크노링 주행사험장(약 38만평), 지상 2층 규모의 고객 전용 건물(약 3000평), 8개의 주행 체험 코스로

구성된다. 8개의 주행 체험 코스는 ▲제동 코스 ▲마른 노면 서킷 ▲젖은 노면 서킷 ▲4.6km 고속주회로 ▲짐카나(gymkhana) 및 복합 슬라럼(slalom) 등을 체험하는 '다목적 주행 코스' ▲드리프트(drift)를 체험하는 '젖은 원선회 코스' ▲킥 플레이트 코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을 위한 경사로·자갈·모래·



범포·수로 등 오프로드 코스로 이뤄져 있다. /양성운 기자 ysw@

G마켓·옥션 '프로야구 직관의 모든 것' 기획전

신세계그룹 계열 e커머스 G마켓과 옥션이 '프로야구 직관의 모든 것' 기획전을 이달 21일까지 진행한다.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프로야구를 직접 관람하려는 팬들을 위해 마련됐다. G마켓은 야구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상품들을 단계별로 구성했다. '응원하다 보면

출출해' 코너에서는 야구장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과자·간식, 안주류, 음료를 선보인다. '승리만큼 중요한 피부' 코너에서는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를 특가에 제공한다. 이 외에도 '원정숙소 걱정 NO!' 코너를 통해 야구장 인근 숙소를 추천하고, '야구장 인싸는 나야나' 코너에서



응원 피켓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한화생명e스포츠 vs 젠지' 2025 LCK 내달 2일 개막

2025년 LCK 정규 시즌이 내달 2일 개막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 e스포츠의 한국 프로 리그를 주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는 2025 LCK 정규 시즌이 내달 2일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의 경기로 막을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LCK는 2025년부터 기존 스포링·서머 분할 운영을 폐지하고 단일 시즌

제로 전환했다. 정규 시즌은 총 5라운드로 진행되며, 3라운드부터는 성적에 따라 '레전드 그룹'과 '라이즈 그룹'으로 나뉘어 경기를 치른다. 내달 2일 개막전에서는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가 맞붙는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LCK컵 우승에 이어 국제 대회 퍼스트 스탠드에서도 전승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젠지가



개막전에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에는 젠지와 T1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주말은 책과 함께

"하루 빨리 아이템 찾아 창업하라"

1인 자영업자들에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IT 회사 직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에 회사가 두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라도 못한 일을 해냈다"는 우스갯소리를 덕담으로 건넸다. 희한한 일이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국내 경기 둔화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지속으로 스러져간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데, 이들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회사는 돈을 벌었다니. 점주들이 오프라인에 차렸던 가게를 온라인으로 옮겨가서 홈페이지 제작사가 대박 난 걸까. 그 이유가 궁금해 원인을 물었다. 온라인 스토어 사장이 부캐(부캐릭터)인 MZ세대 직장인들이 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객사 중에는 '오늘의 글귀' 같은 걸 보내주는 곳도 있다고 했다. 명언, 고사성어, 소설 속 명대사 등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3초 안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며 "사람들이 왜 돈 주고 그런 서비스를 신청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는 "네가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것이다"고 타박했다. '직업의 종말'을 읽다가 왜 요즘 부캐로라도 사장이 되려는 젊은 직장인



직업의 종말
테일러 피어슨 지음/방영호 옮김/부키

들이 늘어난 건지 알게 됐다. 책은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아 창업하라고 조언한다. 직장인이 아닌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안정 추구형 인간들에게 저자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떠올리라고 말한다. "당신이 삶이라고 일컫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에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당신만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다." 263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젤렌스키 "미·우크라 며칠 내 사우디서 후속 협의" /사진 뉴시스
▲브라질, 기준금리 14.25%로 1%P 인상... "인플레이션 경계"

▲트럼프, '금리 동결' 연준 압박... "인하가 훨씬 좋을 것"
▲트럼프 "발전소美得 넘겨라"... 우크라 종전협상 새 책으로

▲日도요타 자회사 히노, 배출가스 조작으로 美서 벌금·추징금 2.4조원
▲"美트럼프, 주일미군 확장 계획 중단 검토... 1조 7000억원 경비 삭감"



홈플러스 반사이익
이마트·롯데마트 등
매출 '쑹'
니



Life

고성장 올리브영
신흥강자 에이피알
뷰티시장 재편
L2



자연 품은 조형작품 예술 담긴 녹지공간 '신비의 숲'에서 힐링



아파트의 미학(美學) 래미안라그란데

강북 최초 3069세대 규모 대단지
청량함으로 반기는 '사운즈포레스트'
주민 감수성 자극하는 '아쿠아갤러리'

대지 모티브로 원석 표현한 조각상
돌, 물, 식물로 표현한 생태연못 등
단지 곳곳 예술 감상하며 휴식 즐겨

최근 찾아가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 단지의 입구를 명랑하게 알려주는 벽천 '사운즈포레스트'가 입주민을 반긴다. 소나무숲 아래에서 들려오는 청량한 물소리는 깊은 숲 속 계곡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선사한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 한국의 국어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이문초, 청량초, 경희중·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다. 이문4구역이 완공되면 신설 초등학교가 구역 내에 생길 예정이다.

래미안라그란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동, 총 3069세대 규모다. 강북 최초 3000세대 이상의 래미안 단지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52㎡ ▲55㎡ ▲59㎡ ▲74㎡ ▲84㎡ ▲99㎡ ▲114㎡로 구성됐다.

단지는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한다. 산책로, 조각상, 벽천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단지에 들어서면 천장산의 지류를 재해석하고 형상화한 커뮤니티 광장이 보인다. 지형을 닮은 파빌리온 티하우스와 단차를 따라 떨어지는 물결을 형상화한 수경시설로 공간이 구성됐다.

단지의 틈새 녹지를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정원 '아쿠아갤러리'도 눈에 띈다.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길목에서 자연으로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새로운 식물과 재료를 경험하며 일상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아쿠아갤러리 내에는 '레이어드 포 가든'도 조성돼 있다. 김단비 정원작가의 작품으로 사람만을 위한 정원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간이다. 빈 공간을 가진 정원은 사람에게 쉼터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다생명체들과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조각상 '포레스트 오브 드림즈'는 자연과 생명이 내재하고 있는 응축된 힘을 표현하고 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대지를 모티브로 아름다움의 신비를 내보하는 원석을 형상했다.

현실 속에서 마치 꿈을 꾸듯이 빛나는 보석의 결정으로 이뤄진 신비의 숲을 걸어 다니며 가치 있는 휴식을 느끼도록 연출해 감상자들로 하여금 예술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한다.

거대한 바위로 만든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면 또 다른 조각상 '래빗'이 보인다. 2차원의 그림판에 그려지는 드로잉을 3차원의 공간 속에 재현한 작품이다. 밝고 경쾌한 색상의 리드미컬한 드로잉 형식의 작품은 공간에 활기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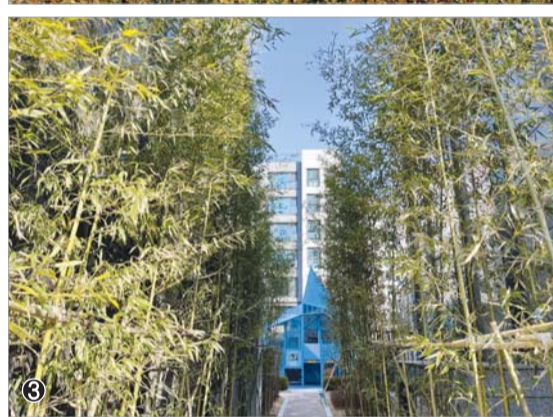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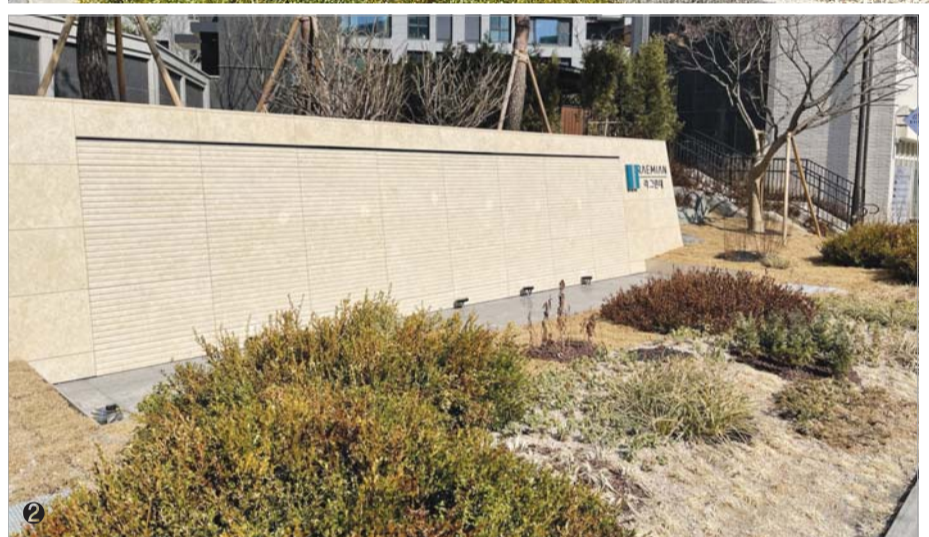
경계와 기로를 상징하는 공간 '공유원'은 가장 편안한 집과 야생적인 자연의 경계에 위치한 정원이다. 시기와 상황 그리고 환경이 제각기 다른 입주민들이 채움이 아닌 비움 속에서 머물 수 있다.

돌, 물, 식물을 재료로 깊은 자연을 표현한 생태연못 '워터프롬나드'에선 가볍게 걸거나 앉아서 현무암의 색과 질감, 물의 소리와 반짝임, 식물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에게 퀄리티 높은 놀이시설을 제공해 여느 테마파크 못지 않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양이와 털실, 치즈, 플루트 등 다양한 컨셉트로 공간을 조성했다.

자연을 담은 단지답게 곳곳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다. 그 중 이 소나무 삼형제는 지리산에서 왔다. 오랜 시간 지리산의 비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자라온 삼형제는 새로운 터전을 잡은 주민들에게 끈끈한 유대와 희망을 전달한다. 더불어 자연과의 연결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① '래미안라그란데' 단지 내 벽천. ② '사운즈포레스트'. ③ 대나무로 이루어진 단지 내 산책로. ④ 커뮤니티 광장. ⑤ '아쿠아갤러리' 내 '레이어드 포 가든'. /전지원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전국 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22~26일 강원도 횡성서 개최
▲NBA 레이커스, 르브론 없이 덴버 격파...둔치 치 31점 맹활약 /사진 뉴시스

▲올해는 류현진·김광현 없다...8년만 전구단 개막 선발투수 모두 외인
▲SSG 최정, 개막 앞두고 부상 비보...우측 햄스트링 손상 진단

▲박수근 화백 지인에 보낸 연하장, 63년만에 귀향
▲'시범경기 타율 1위' 눈도장 찍은 오명진...올해 두산 히트상품 될까